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mailto: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 주간 NEWS

- ▶ 중국의료 'AI' 해외진출 도전 (레이펑왕雷锋网, 2020.4.30)
- ▶ 글로벌 5G 휴대폰 1 분기 연구 보고:1 분기 출하량 작년 한해 총량 초과 (봉황과기, 2020.4.29)
- ▶ 전문가 경고: 전면적 생산 복구 이미 관건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어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2020.4.30)
- ▶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 AI, 5G 전문 고급 인재 긴급 수요 (과기일보 科技日报, 2020.5.1)

## ISSUE 및 시장동향

- ▶ 인터넷 산업 용자 60% 폭락에도 끄떡없이 빛나는 세 가지 업종 — 투중왕(投中网) 제공
- ▶ 멀어지는 무료 인터넷 — 이오왕(亿欧网) 제공
- ▶ 음식배달에 이어 책, 아령 배달까지...만물이 배달되는 시기가 올까 — 신랑과기(新浪科技)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45) 과학기술 열풍, 아마존·IBM·마이크로소프트 양자컴퓨터 세계화 추진  
— 쇼우지중국(手机中国)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23) — 윤형건 교수 제공

##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긴급사태연장'으로 다가오는 '경제정지'가 초래하는 대문제 (동양경제온라인, 2020.4.27)
- ▶ 코로나에 지금 던져지는, 사회과제 해결형 스타트업의 진가는? (Forbes Japan, 2020.4.27)
- ▶ 아베정권의 "쇄국정책", 이제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현대비즈니스, 2020.4.28)
- ▶ 코로나 후 중국에 생기는 '새로운 세어 에코'.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에 대비  
(HUFFPOST, 2020.4.27)
- ▶ 아베정권 코로나대책 갈수록 "세계의 상식"에서 멀어지고 있다 (현대비즈니스, 2020.4.27)
- ▶ '위기하에서는 도저히 못 말기겠다...' 아베 신조 퇴임 카운트다운 시작  
(President Online, 2020.4.29)
- ▶ 신문 TV "정부의 꼭두각시격"인 한심한 실태 (동양경제온라인, 2020.4.27)

- ▶ 코로나 대책으로 중앙은행의 “국채 무제한 매입”을 맞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

(DIAMOND, 2020.4.30)

- ▶ 자랑할 목적으로 타워맨션을 산 중산층. 코로나로 진퇴양난의 지옥상태

(President Online, 2020.4.27)

##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 과학기술

- ▶ “중국 천안”: 코로나 19 기간에도 정상적인 운행 중, 114 개의 필사 발견 (2020.03.23)

### ◆ 금융

- ▶ 국가세무총국 새로운 '코로나 대비 세금 할인 정책 안내' 발표 (2020.03.10)
- ▶ 중국 은행 기관 전염병에 대항하여 신용 대출을 1억 8천만 위안 초과 지원 (2020.3.22)
- ▶ 중앙재정부, 국가 융자 담보기금 3기에서 75억 위안을 영세 기업 대출융치에 지원 (2020.4.3)
- ▶ 재무부, 정부 금융 보증 산업이 중소기업의 재개를 완전히 지원할 것을 요구 (2020.4.4)

### ◆ 의료

- ▶ 국가위건위연합호북서 '질병통제 대훈련' 실시 (2020.3.23)

### ◆ 취업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서비스분야 쌍창(双创)동력 (2020.3.26)

## 주간 NEWS

## 1. 중국의료 'AI' 해외진출 도전 (레이펑왕雷锋网, 2020.4.30)

코로나 19 전염병 폭발이후 중국의 의료 AI 기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AI 의 거대한 역량을 재인식하게 하였다.

본지는 코로나 19 전염병 상황에 대항하는 최대 22개사 의료 AI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1급 응답, 전원 투입, 7\*24 시간 연구 개발, 몸소 전염병 구역에 왕래. 이러한 '역행자'들은 열정적인 태도, 가장 견고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중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넘기도록 도왔다.

중국내 전염병 상황이 점차 평온해진 후 전염병은 해외에서 폭발하였다. 중국의 의료 AI 제품도 순조롭게 해외로 나아갔고 글로벌 범위에서 전문가와 협력하여 전염병을 막아내고 있다.



사진 1) 출처: 레이펑왕(雷锋网). 휘의휘이잉(汇医慧影) 코로나 19 AI 보조 선별 검사 시스템+화웨이 클라우드 부설 솔루션을 태국 정부의 검증을 거친 후 정식 발표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화웨이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인터넷 과학기술 기업은 개방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과학기술 방역 솔루션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 연구기구 IDC 가 발표한 《IDC MarketScape : 2019 중국 AI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바이어평가》에서 클라우드가 비교적 AI 설치와 운영 비용이 높은 문제를 잘 해결했으며, AI 응용 전이, 클라우드 플랫폼까지의 재구축, 또는 클라우드 상에서 AI 서비스 직접 사용이 큰 추세가 되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AI 응용 프로그램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비즈니스를 보다 쉽게 전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웨이 클라우드는 의료 방역 파트너 연맹을 발기했는데 의료 AI 기업 휘의휘이잉(汇医慧影)도 연맹의 일원이다. 연합 화웨이 클라우드는 휘의휘이잉(汇医慧影) 코로나 AI 보조 선별 검사 플랫폼 등

관련 솔루션을 개방하였다. 이러한 보조 선별 검사 플랫폼은 이미 중국 내외 20 여 개 이상의 국가, 30 여 곳 이상의 병원에 배치되었다.

4 월 17 일 태국 총리겸 국방부장 바위(巴育)는 코로나 19 관리센터 책임자로 태국 스리러 병원(诗丽叻医院)병원과 간호인력이 전염병을 통제관리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휘의휘이잉(汇医慧影)과 화웨이 클라우드가 협동으로 배치한 AI 보조 진단 시스템으로 시찰했다.

현재 태국 라마티보디(拉玛提博迪) 병원, 스리러병원(诗丽叻医院)도 이 AI 서비스를 배치하였고 태국 기타 병원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 2) 출처: 레이펑망(雷锋网). 에과도르 총통 Lenin Moreno 와 부총통 Otto Sonnenholzner 가 화웨이 클라우드와 휘의휘이잉(汇医慧影) 코로나 19 AI 보조 선별 검사 시스템에 대해 높은 평가

또한 기술의 진보는 거대한 도전을 수반한다. 의료 산업은 해커 공격의 중점 대상이 되었다.

디지털화 진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 의료, 전자 병력, 스마트 의료설비 등이 유입되며, 공격당한 기관 비용과 환자 데이터 도난 사고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 년 영국 NHS(영국 국가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공격을 받아 40 여 개 병원의 시스템이 정지되었고 정했던 수술이 취소되었으며 구급차도 다른 병원으로부터 불려와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2018 년 1 월 장씨성 여성유아 보건병원(江西省妇幼保健院)은 바이러스로 협박당해 재물을 강탈당했다. 2 월 상하이 모 국립병원은 정보 시스템이 해킹당하여 2 억원 가치의 이더(Ether: 전자 화폐)를 뺏겼다.

이달 중순 휘의휘이잉(汇医慧影)은 해외 공용 클라우드에서 원격으로 부설 훈련 공익플랫폼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사실상 휘의휘이잉(汇医慧影)의 검측분석을 거쳐 공격받고 있는 서버 자신은 훈련 공익 플랫폼의 해외 서버였고 이 서버는 주로 코로나 19 전염병 AI 제품의 공개 시장 재료를 저장해 두었다. 국내외의 코로나 19 전염병 방지와 치료 가이드, 코로나 19 최근 공개 발표된 관련 학술문 개요, 코로나 19 전염병의 처리 훈련 동영상 등의 재료를 포함했고, 휘잉(慧影)의 AI 알고리즘 플랫폼과 비즈니스 생산 플랫폼이 아니었다. 해커는 단지 훈련 재료를 취득했을 뿐, AI 소스 코드는 없으며, 고객 데이터는 더더욱 없었다.

이번 사건은 전세계 의료 기구에게 경종을 울렸다. 의료 정보 보안은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난제가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인터넷 보안 회사도 의료정보 보안 시장을 중시하게 되었다. Grand View 연구보고에 따르면 2020 년 글로벌 의료 인터넷 보안 시장은 108 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해외' 비즈니스를 더 좋게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 범위에서 중국의 AI 역량을 전시하며 국가 또는 기업이건 모두 데이터 안전 '데모클래스의 검'을 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전염병이 계속 심화될 때 데이터 보안을 해치는 것은 전체 산업이 공동으로 대적해야 하는 적이 되었고, 글로벌 의료 산업 파트너는 합심하여 신생 AI 역량 개발과 이 과정에서의 선순환적 발전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제거해야 하며, 전염병 기간 새로운 과학 기술력이 외교적으로 기여하는 데 지원하는 것을 없애 버릴 필요가 없다.

## 2. 글로벌 5G 휴대폰 1 분기 연구 보고:1 분기 출하량 작년 한해 총량 초과

(봉황과기, 2020.4.29)

Strategy Analytics 가 발표한 최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 년 Q1, 글로벌 5G 스마트폰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400 만 대가 넘었다. 중국의 수요가 예측을 넘어섰다.

Strategy Analytics 총감 Ken Hyers 는 말하길 "2020 년 Q1, 전세계 5G 스마트 휴대폰의 출하량은 2410 만 대까지 증가하여 2019 년 전해 5G 스마트 휴대폰의 출하량 (1870 만 대)를 크게 초과했다. 비록 코로나 19 전염병이 출현했지만 5G 스마트 휴대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며 특히 중국에서 그러하다. 중국은 5G 스마트 휴대폰 수요의 선두주자이지만 한국, 미국, 유럽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Strategy Analytics 부총감 Ville-Petteri Ukonaho 은 보충하여 말하길 "2020 년 Q1, 삼성 글로벌 5G 스마트 휴대폰 출하량이 830 만대에 달해 단번에 선두 위치를 차지했다. 삼성은 강대한 글로벌 판매망, 운영 합작 파트너 관계와 신형 5G 스마트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이 가장 환영받는 5G 기기는 S20 5G 와 S20 Ultra 5G 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全球5G智能手机出货量按厂商划分（百万台） 1Q2020**

三星	8.3
华为（包括荣耀）	8.0
vivo	2.9
小米	2.5
OPPO	1.2
其它	1.2
<b>总计</b>	<b>24.1</b>

**全球5G智能手机市场份额按厂商划分（%） 1Q2020**

三星	34.4%
华为（包括荣耀）	33.2%
vivo	12.0%
小米	10.4%
OPPO	5.0%
其它	5.0%
<b>总计</b>	<b>100%</b>

Source: Strategy Analytics

注：数字为四舍五入

표 1) 출처: Strategy Analytics. 상단-글로벌 5G 스마트폰 출하량별 제조사 구분(단위: 백만대) 하단-글로벌 5G 스마트폰시장 점유액에 따른 제조사 구분(단위: %)

Strategy Analytics 총감 Woody Oh 는 보충하여 말했다. “화웨이는 2 위에 랭킹되어 있다. 화웨이의 모든 5G 스마트 휴대폰 대부분은 중국에서 출하되며, 중국은 스마트 휴대폰 시장의 선도주자다. 화웨이의 가장 잘 팔리는 5G 스마트 휴대폰은 Mate 30 , Honor V30 Pro 와 Mate 30 Pro 다.”

Strategy Analytics 총감은 이어서 보충했다. “vivo 는 3 위다. Vivo 의 IQOO 와 X30 5G 스마트 휴대폰이 이번 분기에 중국에서 비교적 잘 판매되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다.

Strategy Analytics 집행총감 Neil Mawston 도 보충하여 덧붙였다. “비록 중국이 신형 코로나 전염병 기간 대부분 시장을 닫았지만 2020 년 Q1, 이전 5 대 5G 스마트 휴대폰 제조사 중 중국산 제조사 출하량이 61%를 점유하며, 이는 대부분 중국 시장을 향하고 있다. 이는 중국 운영통신사 5G 망 설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과 5G 스마트 휴대폰의 잠재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 활동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우리들은 2020 년 이 시장의 5G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진 1) 출처: IT 백과, 화웨이 Mate 30



사진 2) 출처: 바이두 이미지百度图片, Vivo 의 IQOO

### 3.전문가 경고: 전면적 생산 복구 이미 관건이 되는 시기에 접어들어

(중국경제왕 中国经济网, 2020.4.30)

4 월 제조업 PMI 는 전월 대비 1.2% 포인트 감소한 50.8%로 전월보다 제조업 경영 조건이 개선되었지만 확장 추세가 약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작업 및 생산의 본격적인 재개가 관건이 되는 시기에 이미 도래했다면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배경하에서 어떻게 철저히 막힘 지점, 단절된 지점, 어려운 지점을 뚫고 기업, 특히 중소 기업이 정상적인 생산 운영을 완전히 재개하게 해 경제를 회복 상승의 트랙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임무다.

4 월 30 일, 중국 통계국 서비스산업 조사센터(国家统计局服务业调查中心)와 중국 물류&구매연합(中国物流与采购联合)은 연합하여 중국 구매관리지수(中国采购经理指数)를 발표했다. 4 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비 제조업 사업 지수는 모두 우울한 선보다 높았으며 그 중 제조업 PMI 는 50.8%로 전월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 제조업 비즈니스 지수는 53.2%로 월간 0.9% 포인트 증가 종합 PMI 산출 지수는 53.4%로 전월 대비 0.4% 포인트 증가했다.

图1 制造业PMI指数 (经季节调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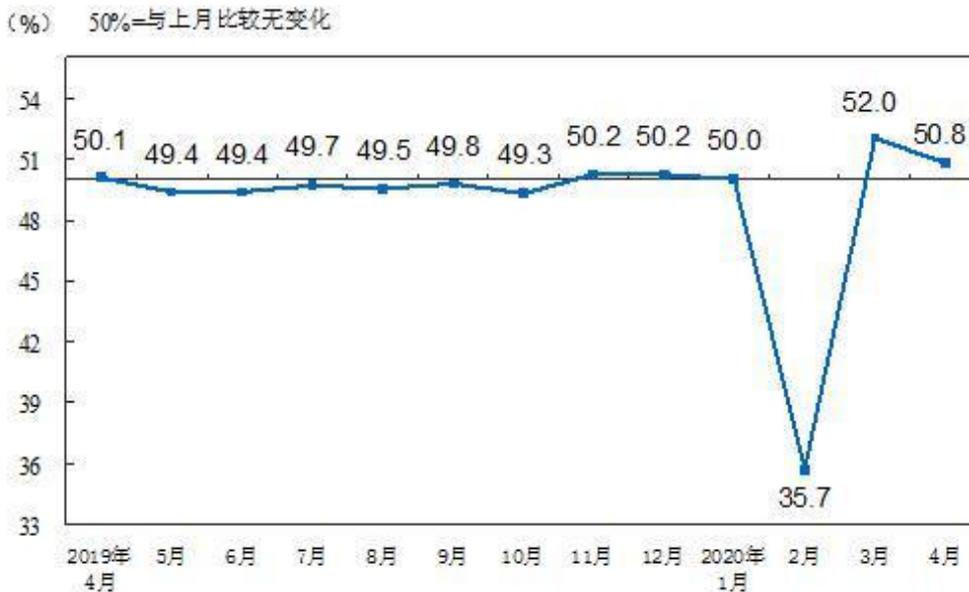


표 1) 출처: 중신징웨이(中新经纬). 중국제조업 PMI 지수.

코로나 19 전염병의 방역 통제 상황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중국의 생산 및 생활 과정 회복이 가속화되었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생산 경영활동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생산 재개가 이미 관건이 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고, 전염병 방지 및 통제의 일상화 배경하에 막힘 점, 중단된 점, 어려운 점을 통하게 하고, 내수 확대를 가속화시키는 전략을 각 항목에서 조치하고, 기업 매출을 유지시키고 회복하게 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 제조업 생산은 점차 정상화

4 월분 제조업 PMI 는 전월 대비 1.2% 포인트 감소한 50.8%로 전월보다 제조업 생산 운영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확장 추세는 다소 약화되었다.

중국물류정보센터(中国物流信息中心) 전문가 원타오(文韬)는 "제조업 PMI 가 지난 달에 비해 하락했지만, 2 개월 연속 융성과 쇠퇴를 거듭하고 있어 경제가 회복되는 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 대비 13 개 각 항목 지표를 기준으로, 생산완제품 재고 지수와 공급 업체의 배송 시간 지수가 각각 0.2 와 1.9% 포인트 증가했으며 그 나머지 지표는 0.4 에서 12.9% 포인트 감소했다. 조사 대상 21 개 산업 중 식품과 주류 음료 정제 차, 자동차 제조 등 9 개 산업의 PMI 지수는 지난 달보다 높았으며, 방직, 화학 원료 제품, 제지 인쇄 등 12 개 산업의 PMI 지수는 지난 달보다 낮았다.

중국 통계국 서비스산업 조사센터의 수석통계학자인 자오칭허(赵庆河)는 분석하여 말하길, 4 월중 생산 재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생산 지수가 전월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53.7%였다. 노동 수요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 지수는 50.2%이며 기업의 직원 고용량은 2 개월 연속 증가했다.

4 월 25 일까지 중국 전국 구매 관리자 조사 기업 중, 대형과 중형기업의 재개율은 98.5%로, 3 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1.9% 포인트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99.7%로 1.0% 포인트 증가했다. 그 중 77.3%의 기업이 정상 수준의 80% 이상의 복구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월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현재 수요 회복은 생산 회복보다 약하다. 4 월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는 50.2%로 전월 대비 1.8% 포인트 하락하여 생산 지수보다 낮았다. 조사한 21 개 산업 중 방직, 방직 복장 악세서리, 화학 원료 제품 등 15 개 산업의 신규 주문 지수는 생산 지수보다 낮았으며, 산업 수요 회복은 생산 회복보다 뒤쳐졌다.

자오칭허(赵庆河)는 또 지적하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문 부족을 반영하는 기업이 57.7%를 넘고, 일부 회사는 시장 수요가 떨어지고, 제품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문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의 전염병 상황이 확산 가속화되고, 글로벌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축소되었고, 수출입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며, 대외 무역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제조 회사는 새로 체결한 수출 주문이 격감했으며 이미 생산을 시작한 주문도 취소되었다고 보고했다.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의 장리쥘(张立群) 연구원은 4 월 PMI 지수가 3 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융성과 쇠퇴 선상에 있으며 경제가 여전히 회복 추세임을 시사하고 있다. 전염병 방지와 통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생산 활동은 점차 정상화되고 PMI 지수 변동도 안정화될 것이다

### **비 제조업은 꾸준히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4 월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53.2%로 전월보다 0.9% 포인트 높았으며, 그 중 건설업과 서비스 산업은 각기 다른 정도로 상승했다.

중국의 비제조업 PMI 각 항목 지수 중 신규 주문 지수, 수종의 주문 지수, 재고 지수, 종사인력 지수, 공급 업체 배송 시간 지수, 비즈니스 활동 기대 지수는 지난 달보다 0.4 에서 4.6% 퍼센트 포인트로 증가했다. 새로운 수출 주문 지수, 투입품 가격 지수, 판매 가격 지수는 0.4%에서 3.1% 포인트로 감소하여 지난 달보다 하락했다.

건설 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4 월 건설 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59.7%로 전월보다 4.6% 포인트 증가했으며, 그 중 토목 공정 산업이 전체보다 높았다. 노동력 수요와 시장 기대의 관점에서, 건설업 고용 지수와 비즈니스 활동 기대 지수는 전월 대비 4.0 및 5.5% 포인트 상승한 57.1% 및 65.4%였다. 기존 인프라 복구 및 새로운 인프라 가속화와 같은 정책에 의해 건설 산업에서의 생산 재개와 회복은 확연히 가속화되었다.

서비스 산업의 관점에서 4 월 서비스 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52.1%로 전월 대비 0.3% 포인트 증가했다. 이 조사의 21 개 산업 중 14 개 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50.0% 보다 높았다.

"기업의 근무와 생산 복구 촉진, 사업과 시장 재개, 주민의 소비 확대, 공공 소비 증가 등의 정책 추진하에, 서비스 산업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장칭허(赵庆河)는 말했다. 비록 서비스 산업의 비즈니스 활동 지수가 2 개월 연속 반등했지만, 일부 산업에서 생산 재개는 여전히 정체되고 뒤쳐져 있다. 숙박,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주민 서비스와 같은 산업은 전염병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3 개월 연속 45.0% 미만으로 관련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4 월에도 비즈니스 활동과 신규 주문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비제조 산업이 계속해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물류와 구매 연합 부회장인 차이진(蔡进)은 현재 기본 민생 소비와 인프라 투자 동시 구동이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여긴다. 총체적으로 보건대 2 분기 비제조업은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는 형세를 보여 경제 운영의 기본 추세가 발전을 향해 가고 있음을 예견한다.

중국 물류 정보 센터의 전문가인 우웨이(武威)도 4 월 데이터로 보면 중국내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통제된 상황이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었으며, 기업의 근무 복귀와 생산 재개도 더 빠르게 추진되어 관련 소비의 반등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기본 민생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었고, 내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 기준점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 가속화

4 월 종합 PMI 산출 지수는 53.4%로 전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으며, 중국 기업의 생산 및 운영 활동은 계속 재개됐다. 종합 PMI 생산 지수를 구성하는 제조업 생산 지수와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53.7%와 53.2%로 전기간 대비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상승했다.

예측 관점에서, 4 월의 제조 생산 및 운영 활동에 대한 예상 지수는 54%로 전월 대비 0.4% 포인트 감소한 반면 변동폭이 비교적 작고 지수가 이미 작년 평균 수치에 가까워 시장 예측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4 월 PMI 지수의 변화는 전면적인 작업 재개와 생산 회복이 이미 관건이 되는 시기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전염병 방역 통제가 일상화되는 배경하에 막힌 점, 중단된 점,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기업 특히 중소 기업과 미니 기업이 전면적으로 생산 경영을 회복하도록 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발전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당면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임무다." 장리쥘(张立群)은 이와 같이 말하며 반드시 빨리 내수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전략을 각 항목에서 조치해야 하고, 빠르게 초대 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 수요 잠재력을 열어서 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원타오(文韬)는 현재의 경제 운영은 3 월의 명백한 회복을 바탕으로 4 월에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외부 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시장 가격이 하락했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안정"과 "6 보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중국의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외부 압력을 완화시키는 각종 조치를 취하고, 중국 경제 내부에서 자라는 성장동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2 분기의 처음 시작은 비제조업이 빠르게 회복 운영되는 추세를 보였고 경제 운영 기본 추세가 좋은 발전을 향해 감을 예시한다. "우웨이(武威)는 이와 같이 말하며 현재 시장 수요 기초가

여전히 견고함을 필요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 상태는 아직 시간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 경제 운영 과정 중 지속적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하고 시장 수요가 내부 근원적으로 성장이 안정적이게 해야 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관련 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게 보장해야 하며, 경영 균형을 유지하려 애써야 한다.

#### 4.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 AI, 5G 전문 고급 인재 긴급 수요

(과기일보 科技日报, 2020.5.1)



사진 1) 출처: 장쑤 차이나모바일(江苏移动) 쉬저우시민(徐州市)이 5G 미래체험관에서 5G 매력을 체험하고 있다.

5G 일자리는 전년 대비 81.9% 증가했고, 산업 인터넷은 74.64% 증가했고, 빅 데이터 및 인공지능은 전년 대비 각각 45.46%, 43.20% 증가했다...새로운 인프라 건설이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가! 이 일련의 도약하는 데이터를 통해 보지만, 식견과 시야가 좁아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없다.

최근 리에핀(猎聘)빅 데이터 연구소는 <2020 Q1 보고서: 빅데이터로 분석한 전염병 상황이 중고급 인재의 채용과 구직에 미치는 영향>(이하 "보고서"라고 함)을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새로운 인프라의 7대 관련 영역의 직위가 전반적으로 2019년 1분기보다 42.96%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농후한 '과학 기술 스타일'이 지원하기 시작한 새로운 인프라 건설은 전염병 기간, 기술 혁신과 정보망의 우세로 전통적인 인프라 설비 건설의 전염병 동안 강력한 "과학 및 기술 팬"이 지원하는 새로운 인프라는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의 "양 맥"을 뚫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인프라 건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인재 축적이 관건이 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과학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5G, 인공 지능 산업의 고급 인력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지만 인재 교육에는 주기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시도하건 양자간에는 모순이 있으며 대학에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했다.

### 5G, 빅 데이터, 인공 지능 일자리 폭발

"내년에 졸업하는 5G 방향의 석사생들은 최근 이미 모두 기업에 예정되었다." 동남 대학교(东南大学) 정보 과학과 엔지니어링대학 부교수인 장추안(张川)은 최근 학생들로부터 연달아 좋은 소식을 받았다. 그가 소재한 이동통신 국가 통신 중점 실험실은 3G, 4G 및 5G 이동 통신의 주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5G 는 새로운 인프라의 7 대 산업 프로젝트 중 하나일뿐이다. 그것과 인공 지능, 빅 데이터 센터, 산업 인터넷, 새로운 에너지 차량, UHV 와 도시 고속철도 및 궤도식 도시 교통은 전염병 상황하의 클라우드 단말에서 요구하는 직업 시즌이며 칠검(七劍)하의 천산(天山)이라 부를 수 있다.**

최근 리에핀 빅 데이터 연구소(猎聘大数据研究院)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5G 온라인 일자리는 작년 1 분기보다 80%를 초과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산업 인터넷으로 전년 대비 74.6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빅 데이터, 인공 지능, 신에너지 차량 영역의 온라인 일자리 성장은 40%를 초과했으며, 신에너지 차량 분야의 온라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2.56% 증가했다 ...

새로운 인프라 분야의 채용 직위의 갑작스러운 증가는 각지 투자 중점항목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광둥성 2020 년 총투자 5.9 조 위안의 1230 개 중점 프로젝트 중 고속철도, 성간의 궤도 교통 등 철로 엔지니어링의 총투자액이 5683 억 위안에 달하며 올해 투자는 531 억 위안이 될 것이다.

올해 장쑤성에서 실시할 주요 지방 프로젝트 중, 혁신 통신 사업에 대한 연간 투자 계획은 87 억 위안이며 네트워크 통신, 인공 지능, 신에너지원, 태양광 제품 연구 개발 등 20 개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5G 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160 억 위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새로운 인프라"라는 개념은 유래한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일찍이 2018 년 말 중앙 경제 작업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5G, 인공 지능, 산업 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건설'로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2019년에는 "5G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IPv6 (인터넷 협의 제 6 버전)의 규모를 배치하고, 인공 지능, 산업 인터넷,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 건설과 융합 응용을 강화"가 정부 보고서에 쓰여졌다.

발생 이후 인공 지능은 전염병 모니터링, 온도 감지, 바이러스 탐지, 생산 재개 등 각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5G + 원격 의료, 지능형 의료 로봇, 무인 소독, 원격 교육, 온라인 사무 등 응용 프로그램의 적용이 가속화되었다. 보다 많은 사용자를 위해 더욱 직관적인 5G 체험을 제공한다.

중국 인민 대학교 디지털 경제 연구센터의 교수이자 중국 인민 대학교 스마트 사회 통치 연구 센터 부주임인 펑리홍(彭丽红)은 대학들이 인공 지능, 디지털 경제, 데이터 관리와 같은 관련 전공의 설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적 전공과 디지털 기술, 인터넷망, 빅데이터 전공의 학과 융합 시도를 장려하고, 복합형 인재에 대한 절실한 수요에 대해 디지털 경제와 신인프라 건설에 적응해야 한다.

### 고급 인재 부족

#### 인재 교육에는 광범위한 기초와 짙은 특색이 필요

2020 년까지 인공 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500 억 위안을 초과하고, 관련 산업 규모가 1 조 위안을 넘어설 것이다.

인재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열쇠다. 2019 년 전국의 35 개 대학에 인공 지능 분야의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도록 승인되었으며 101 개 대학에서 로봇 공학 전공을 개설하도록 승인되었다.



사진 2) 출처: 과기일보(科技日报)

그러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공 지능 인재 부족이 이미 5 백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중국 내에는 인공 지능 관련 고급 인재가 부족하고, 인공 지능 전공을 위한 성숙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각 학교는 각자 자체 학과를 기반으로 인재 배양을 진행한다. 일부 대학은 기초 이론에 중점을 두고 일부는 인공 지능의 적용을 강조한다." 동남대학(东南大学) 인공 지능 대학 학장 궁쑤(耿新)은 과기일보 기자에게 말하길 인공 지능을 전공하는 첫번째 입학생은 현재 2 학년에 불과하지만, 산업계의 인재에 대한 갈구로 인해 인공 지능 방향으로 공부하는 두 명의 대학원생이 생겼습니다. 현재 일부 기업에 의해 이미 "졸업 후 입사가 예정"되었다. 난징의 한 인공 지능 연구 분야의 박사 과정 학생은 2 년째가 되었으며 한 회사의 연구소에서 "발탁"되어 연봉 백만 위안을 약속받았다.

"인공 지능 전공의 목표는 현재 명확하지 않다. 나는 지식 시스템을 형성하고 실제와 결합 응용하고, 여러 학과 교차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궁쑤(耿新)은 이 전공의 학생은 교학 기초를 착실히 공부하고 동시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계 학습, 모델 식별 등 통용 기술을 알아야 하고, 시각 언어 처리, 빅데이터 분석도 이해해야 한다. 이외에 인공지능 응용과 관련된 타전공도 섭렵하여 예를 들면 기계 전공도 교학간 인공 지능 내용에 융합할 수 있어 스마트 제조 발전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장추안(张川)이 볼 때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 기술 중 하나인 5G 또한 고급 인재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5G 관련 산업은 비교적 기술 장벽이 높고 실전 능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습니다. 현재 고급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인재는 탄탄한 수학, 물리 기초 외에도 신호 처리, 통신 원리, 랜덤 프로세스, 하드웨어 설계 등 기타 관련 지식에도 능숙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고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서 통신 및 기타 기술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업계 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 능력을 모두 겸한 인재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장추안은 말했다.

새로운 인프라는 양질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활성화의 성패를 가르기도 하다. 기술 혁신에 의해 구동되는 새로운 인프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자체 규율과 주기가 있다. 어떻게 이 시대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난징 대학과 장강산업 경제 연구원 원장 류즈바오(刘志彪) 교수는 기자에게 대학에서 인재를 배양할 때, "너른 기초, 통용성, 특색화"의 배양 모델을 채택해야 하며, 학생의 지식 구조를 더 광대하게 하고 미래의 선택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접속하고 학생이 취업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ISSUE 및 시장동향

## 1. 인터넷 산업 용자 60% 폭락에도 끄떡없이 빛나는 세 가지 업종

— 투중왕(投中网) 제공

2020년 1 분기에 거시 경제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인터넷 산업 용자 시장 활성화도도 작년 동기간 대비 연속 하락했으며 창업 기록도 저조하다. 전염병 영향하에 오프라인 소비가 제한을 받으며 신선농식품 무역 등 일반 국민 생활류 이커머스가 두각을 나타내 자본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 빅데이터가 각 영역에서 점차 응용 보급되었으며 전염병 기간 특별히 두드러져 용자 획득 상승 추세가 뚜렷했다.

이번 분기에는 총 5 개 인터넷 기업이 IPO 를 완성했고 총 규모 7.53 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다. IPO 수량과 규모는 같은 기간 균일하게 다소 상승했다. 이번 분기에 80% IPO 중소기업이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업이었다고 모두 커창반(科创板)에 상장되었다. 전염병 상황하에서 빅데이터가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두드러졌고 빅데이터 기업 발전도 황금 시기를 맞이했다.

## I. 인터넷 활약도 계속 하락, 빅데이터 현저한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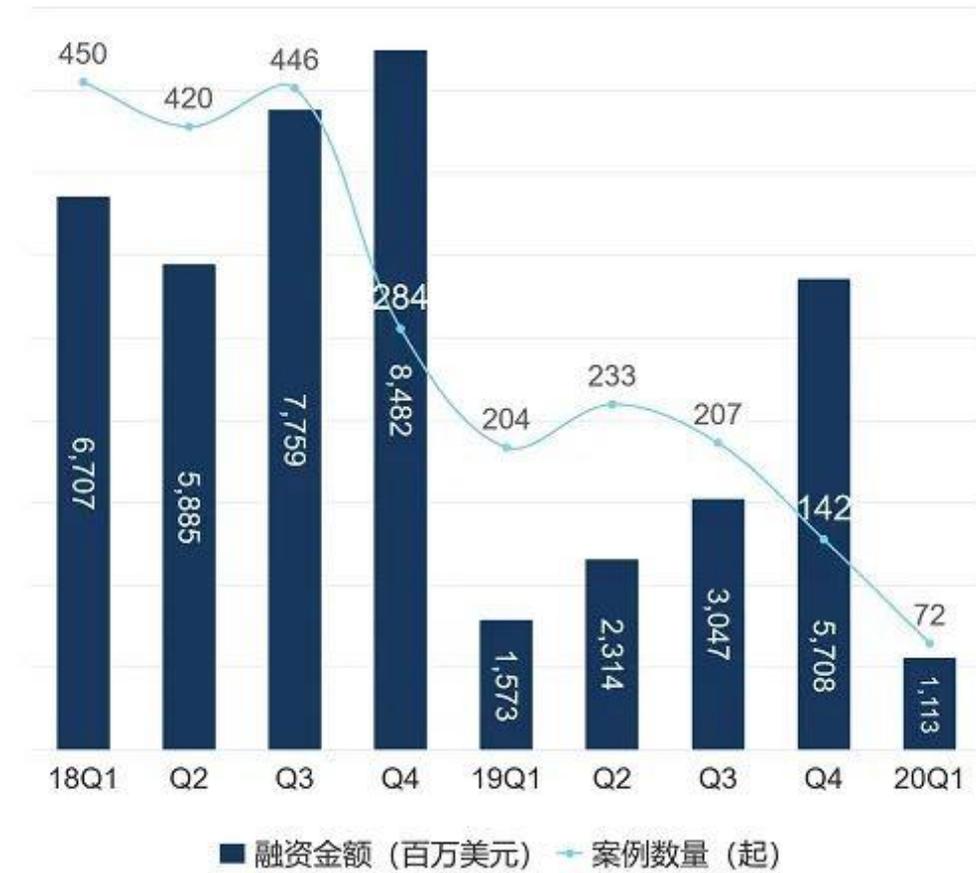
2020년 1 분기 거시 경제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인터넷 산업 용자 시장 활성화도도 작년 동기간 대비 연속 하락했으며 창업 기록도 저조하다. 전염병 영향하에 오프라인 소비가 제한을 받으며 신선농식품 무역 등 일반 국민 생활류 이커머스가 두각을 나타내 자본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 빅데이터가 각 영역에서 점차 응용 보급되었으며 전염병 기간 특별히 두드러져 용자 획득 상승 추세가 뚜렷했다.

## 1. 인터넷 활약도 지속 하락, 용자수량 절단됨

2018년 1 분기부터 2018년 3 분기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인터넷 산업은 거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2020년 1 분기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거래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 분기의 중국 인터넷 산업의 용자 수량은 단지 72 건으로 전년 대비 64.71 %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 49.30 % 감소했다.

용자규모의 관점에서, 2018년 1 분기에서 2018년 3 분기까지 전체 추세는 상승하고 있다. 2019년 자본 겨울의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둔화되고 용자 활동의 활성화도가 하락해, 2020년 1 분기 용자규모는 11.13 억 달러로 작년 동기간 대비 29.24 %, 하강했고, 전기간 대비 80.50 % 감소했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용자 수량과 규모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Q1-2020Q1中国互联网行业VC/PE融资情况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投中研究院, 2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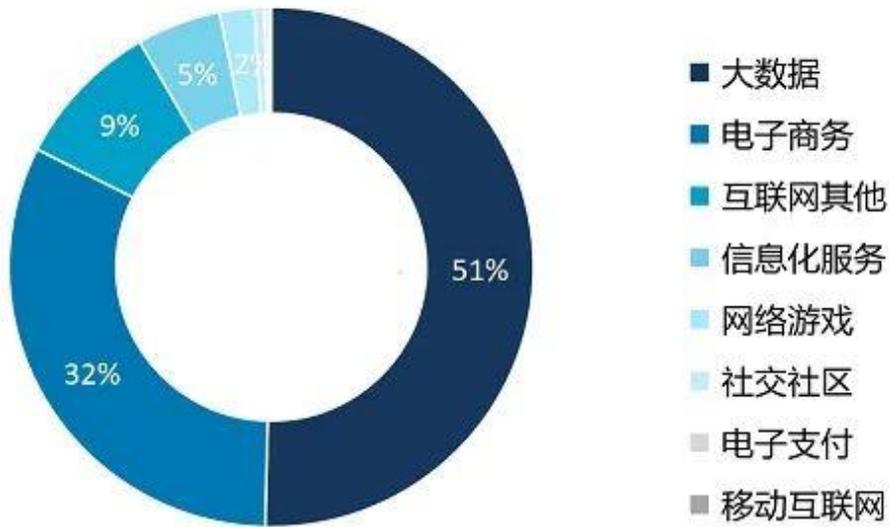
표 1)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18Q1-2020Q1 중국인터넷산업 VC/PE 용자 상황

**2. 빅데이터 용자규모 최대, 국토의 절반을 점유**

교역 규모에서 보자면 빅데이터는 5.6 억 달러의 용자를 획득해 선두 자리에 있으며 51%를 점유해 국토의 절반을 점유했다.

교역 수량에서 보면, 2020년 1분기 전자상거래가 획득한 투자가 가장 많아 총 26건이며 36%를 차지하여 랭킹 1위를 차지했다.

### 2020Q1中国互联网市场细分领域交易规模占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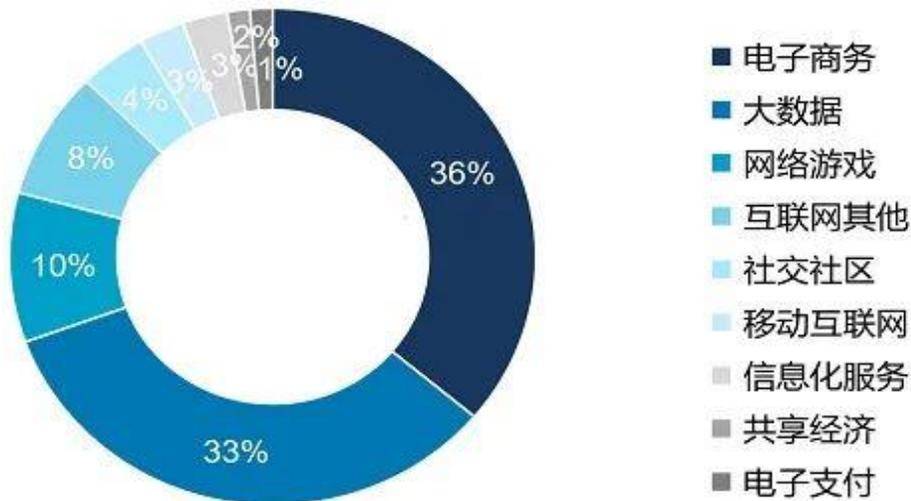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投中研究院, 2020.04

표 2)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20Q1 중국 인터넷 시장 세부영역 교역 규모 점유율

### 2020Q1中国互联网市场细分领域交易数量占比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投中研究院, 2020.04

표 3)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20Q1 중국 인터넷 시장 세부영역 교역 수량 점유율

### 3.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세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차지

전자상거래가 1위를 차지했다.

용자데이터 기록에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산업에서 용자 수량이 시종 1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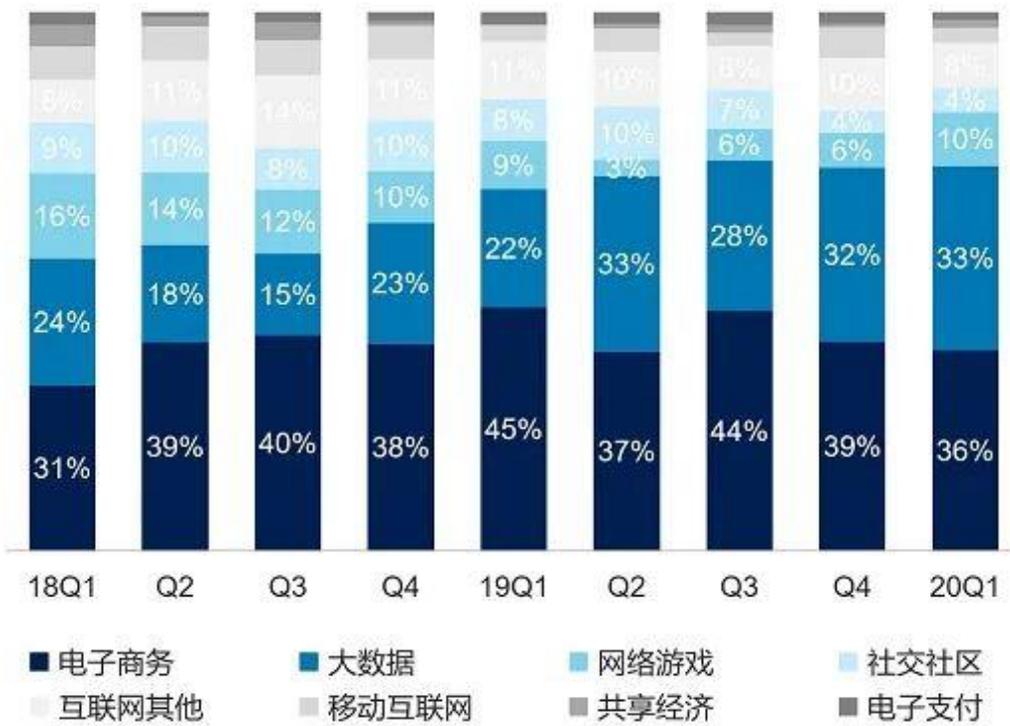
이번 분기에 코로나 19 영향하에 밀집형 소비는 제한을 받았고 전자상거래 추세는 침강시장에까지 분포했다. 신선농산물 무역 등 민생류 전자상거래가 특출하여 자본의 주목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기타 세부 영역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았고 전자상거래 발전은 여전히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빅데이터 상승 추세 현저**

과거 데이터로 보면 빅데이터는 투자수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1 분기에 33%를 차지했으며 과거 동기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빅데이터 발전의 상승세가 아주 뚜렷하다.

이번 분기에 빅데이터는 전염병 기간 아주 실적이 좋아. 유동 고위험 인구 조사, 기업 작업재개 검토와 관리, 커뮤니티 방역 통제와 같은 많은 "방역"안건을 다루었다.

2018Q1-2020Q1中国互联网市场细分领域交易数量占比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投中研究院, 2020.04

표 4)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18Q1-2020Q1 중국 인터넷 시장 세부영역 교역 수량 점유율

**4.인터넷 영역 중점 용자 사례**

TOP1 :

시휘투안(十荟团) 8830 만 달러 용자 획득

이번 라운드의 투자측은 위위에캐피탈(愉悦资本), 한처캐피탈(汉策资本), 치밍벤처캐피탈투자(启明创投), 알리바바(阿里巴巴), 전거펀드(真格基金), 화창캐피탈(华创资本)이다. 모집된 자금은 공급망과 기술 방면에 투입되어 산업체인 건설을 심화할 것이다.

TOP2 :

‘완도공주(豌豆公主)’ 53 억 엔 신용자 획득

이번 라운드 투자자는 SBI 홀딩스주식회사, 일본대형약품화장품 체인점 SugiHoldings 주식회사, 중신그룹 산하의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플랫폼 신진홀딩스 (信金控股, 약칭 신진홀딩스). 이번 라운드 용자 자금은 운영, 시장, 팀 인원 등에 투입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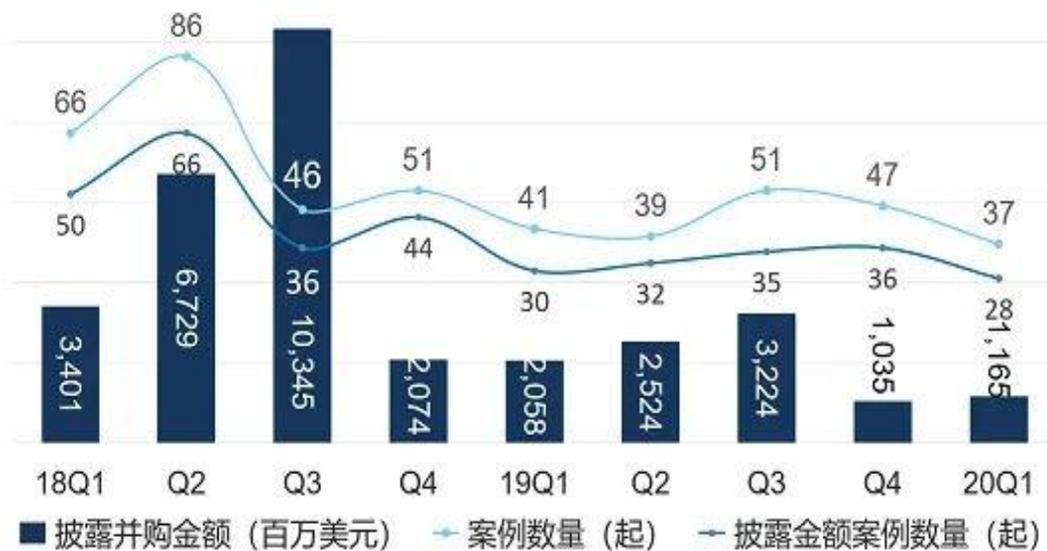
II. 인수 합병 건수 연속 하락, 용자규모 소폭 회생

자본 동절기와 전염병 영향을 받아. 2020Q1 인터넷산업은 합병 인수 교역안건 수량과 규모가 균일하게 감소했으며 완료된 인수 및 인수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20 % 증가하여 약간의 반등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1.인수 합병 건수 지속 하락, 완성 규모 소폭 회생

2020 년 1 분기 인터넷 인수합병을 발표한 교역은 총 37 건이며 전년 대비 9.76 % , 전기간 대비 21.28 % 감소했다. 발표한 거래 규모는 11.65 억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43.39 % 감소, 전기간 대비 12.56% 상승했다. 이번 분기에 발표된 거래 수량과 규모는 같은 기간에 비해 균일하게 모두 감소했다.

2018Q1-2020Q1中国互联网行业并购市场宣布交易趋势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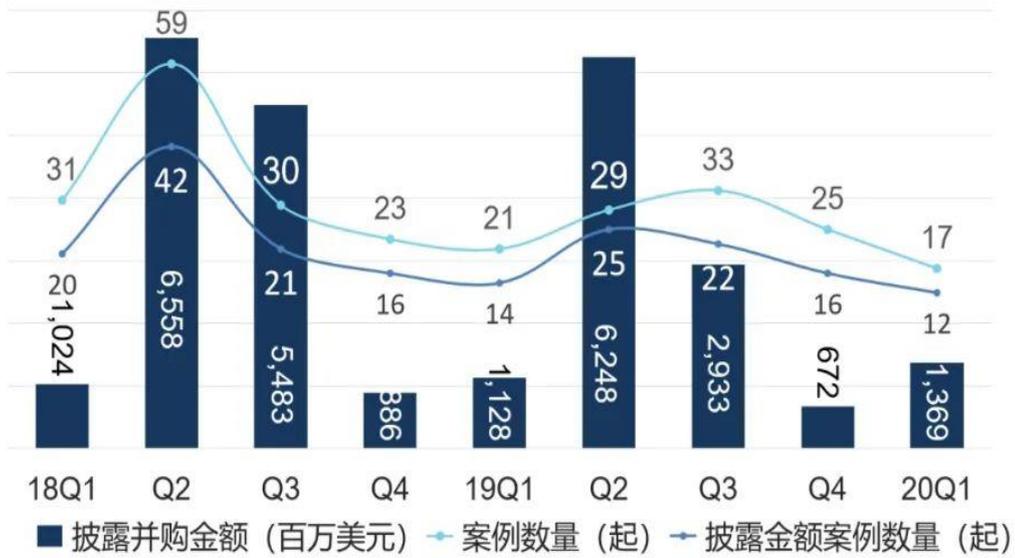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投中研究院, 2020.04

표 5)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18Q1-2020Q1 중국 인터넷 기업 M & A 시장 거래 동향

1 분기에 인터넷 인수합병에서 총 17 건의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전년 대비 19.05 % 감소하고 전기간 대비 32 % 감소했다. 발표한 거래 규모는 13.69 억 달러, 전년 대비 21.37 % 증가, 전기간 대비 103.72 % 증가했다. 완성 거래 규모는 같은 기간 약간 반등했다.

### 2018Q1-2020Q1中国互联网行业并购市场完成交易趋势图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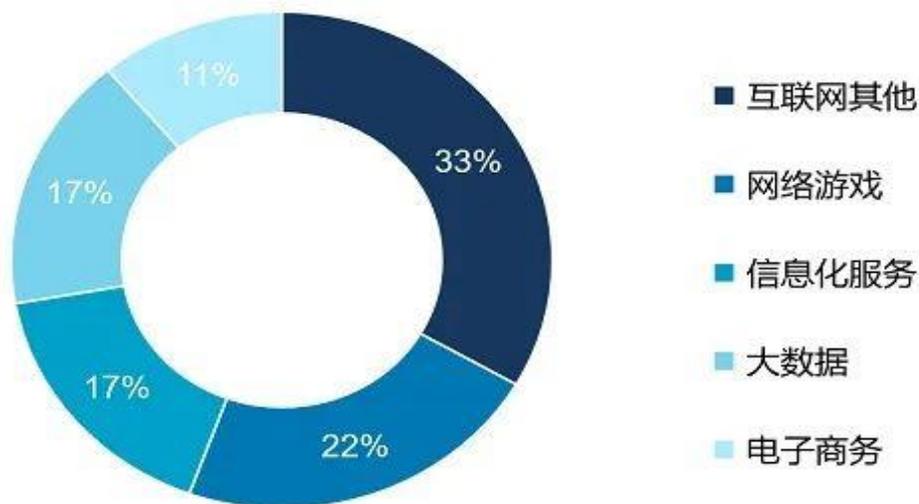
投中研究院, 2020.04

표 6)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18Q1-2020Q1 중국 인터넷 산업 인수합병 시장 완성거래 동향

#### 2.정보화 서비스의 출현, M & A 규모 목록에서 1 위

인수 합병을 통해 완료된 거래 수량 관점에서 2020 년 1 분기에 인터넷 기타 순위에서 1 위를 차지했으며 총 6 건의 안건이 있고 33 % 점유율을 보였다.

### 2020Q1中国互联网市场细分领域交易数量占比



数据来源: CVSource投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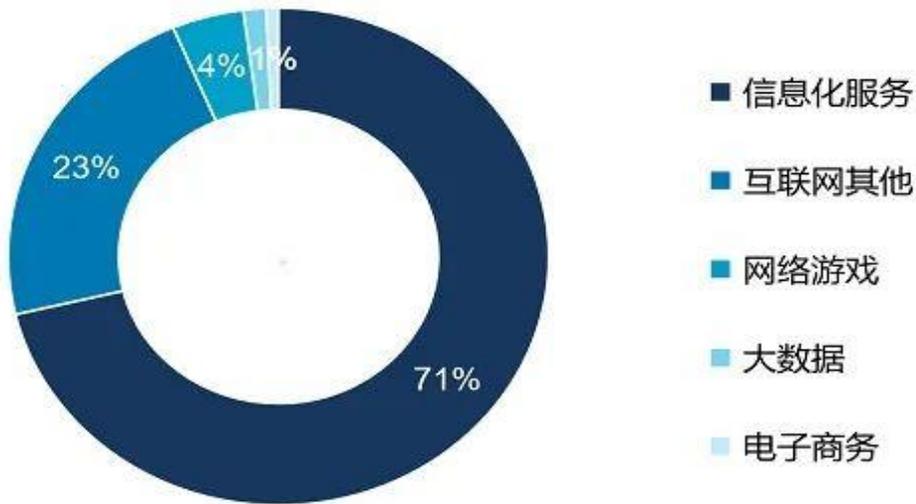
投中研究院, 2020.04

표 7)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20Q1 중국 인터넷 시장 세부영역 교역수량 점유율

인수 합병을 통해 완료된 거래 규모 측면에서 2020 년 1 분기의 정보화 서비스는 돌연 일어서 규모가 9.93 억 달러에 달하며 72%를 차지하며 목록에서 1 위에 랭킹되었다.

이번 분기는 주로 중허캐피탈(中核资本)이 통팡(同方) 주식 지분 21 % 인수와 같은 대규모 안건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보화 서비스 인수 합병 규모는 비교적 큰 규모를 차지했다.

2020Q1中国互联网市场细分领域交易规模占比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投中研究院, 2020.04

표 8)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020Q1 중국의 인터넷 시장 세부영역 교역 규모 점유율

### 3.인터넷 분야의 주요 M & A 사례

TOP1 사례:

2020 년 1 월 7 일 중허캐피탈(中核资本)은 통팡(同方) 주식의 21%를 63.98 억 위안으로 인수했다.

주식 양도를 완료한 후 칭화홀딩스(清华控股)는 회사 주식의 4.75 %를 직접 보유하며, 즈광그룹(紫光集团)을 통해 주식의 2.35 %를 간접 보유하며, 통팡(同方) 주식의 7.10 %를 보유했다. 중허캐피탈(中核资本)은 회사 주식의 21 %를 보유하며 회사의 지배 주주가 되었고 회사의 실제 관리자는 교육부에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로 변경되었다.

TOP2 사례:

2020 년 3 월 6 일, 장쑤 흥통 광전 홀딩스 유한공사 (江苏亨通光电股份有限公司 600487.SH)는 화웨이 해양(华为海洋) 지분 51 %를 인수했다.

화웨이해양은 2008 년 1 월 25 일에 설립되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해저 케이블 엔지니어링 회사로, 현재 주로 글로벌 해저 케이블 통신 네트워크 건설에 종사하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 네트워크 건설 솔루션 제공 업체다.

Ⅲ. 커창반(科创板)은 인터넷 IPO 를 장려하고, 빅 데이터는 상장의 주요 동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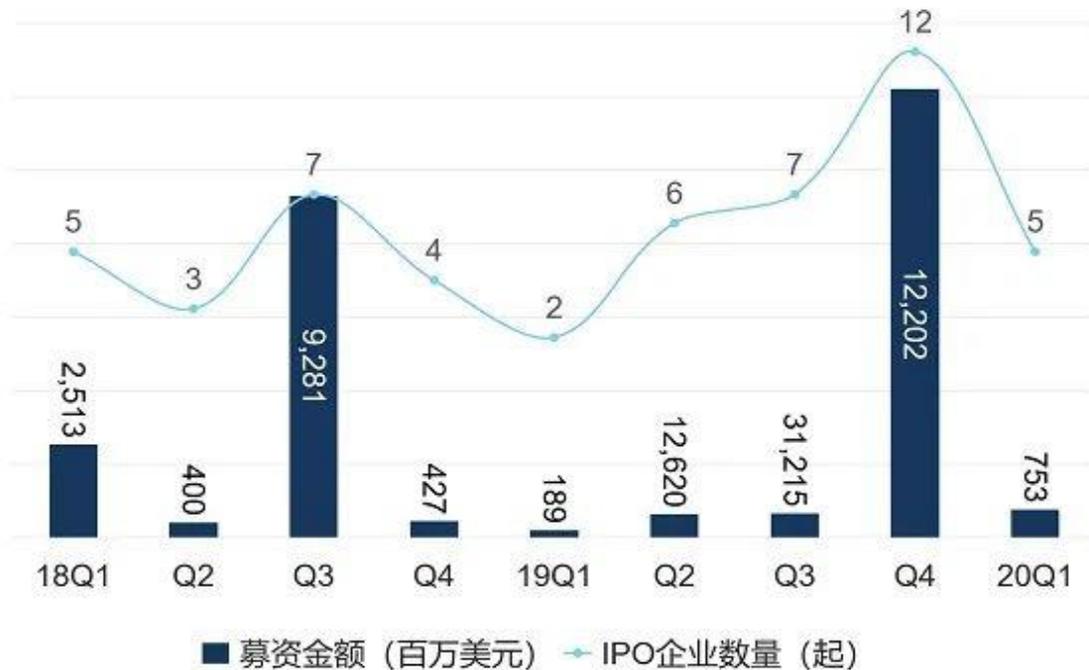
2020 년 1 분기에 총 5 개의 중국 인터넷 회사가 IPO 를 완료했으며 모집 자금 총규모는 7.53 억 달러였으며, IPO 의 수량과 규모는 역사상 같은 기간 동안 증가했다. 이번 분기에서 IPO 중소기업의 80 %가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이며 모두 커창반(科创板)에 상장되어 있다. 전염병 상황에서 빅 데이터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지고, 빅 데이터 기업의 발전 또한 황금기에 이르렀다.

1. 커창반(科创板)은 IPO 를 촉진, 빅 데이터가 90 %를 초과하는 규모

IPO 상황: 2020 년 1 분기에 총 5 개의 인터넷 중소기업이 IPO 를 완성했고 전년 대비 150 % 증가했다. 모금 규모는 전년 대비 298 % 증가한 7.53 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번 분기에 상장된 5 개 인터넷 중소기업 중 4 개 사가 커창반(科创板)에 상장되어 있으며 모두 빅 데이터 관련 산업이며, 모금 규모는 1 억 달러를 넘었다.

트렌드 분석: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빅 데이터는 인원 정보 추적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번 분기 빅데이터의 총 모금 규모는 2020 Q1 의 97 %를 차지했다. 이번 분기 인터넷 IPO 중소기업은 방역의 관건이 되는 시기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으며, 자본 시장의 신뢰를 크게 높였고,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2018Q1-2020Q1中国互联网行业IPO募资情况



数据来源: CVSource投中数据

投中研究院, 2020.04

표 9) 출처: CVSource 투중(投中)데이터. 2018Q1-2020Q1 중국인터넷산업 IPO 자금모집상황

2. 빅 데이터가 상장의 주력이 됨

요우커드(优刻得)는 19.44 억으로 커창반(科创板)에 상장했다.

2020년 1월 20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업체인 유우커드(优刻得 688158.SH)는 상하이 증권 거래소의 커창반(科创板)에 상장되었으며, 모금 규모는 19.44억 위안이며, 최초의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주식이자 중국 A-주식 시장의 첫 번째 같은 주주 다른 권한의 상장회사가 되었다.

자수정 스토리지(紫晶存储) 10.23억 커창반(科创板) 상장:

2020년 2월 26일, 광학 스토리지 기업인 자수정 스토리지(紫晶存储)가 커창반에 상장했으며 모집 자금 규모는 10.23억 위안이다. 자수정 스토리지(紫晶存储)는 중국 내 빅데이터 스토리지 산업에서 스토리지 매개체, 스토리지 장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산업 솔루션 시리즈 상품을 보유한 기업이다.

#### IV. 2020년 4분기 인터넷 산업 핫스팟 회고

공신부(工信部) 5G 가속 발전 촉진, 5가지 방면 18개 프로젝트 조치 실시 명확

시진핑 총서기는 5G 네트워크 쾌속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연설했고, 전력을 다해 5G 망을 건설하고, 응용 프로그램 홍보, 기술 발전과 안전 보장, 5G 신형 인프라시설의 규모효과와 역할 충분히 발휘, 경제의 고품질 발전 지원에 힘쓴다. 공업과 정보화부문은 2020년 3월 24일 <5G 발전 가속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여 5G 망 건설 배치를 가속화할 것을 명확히 하고, 5G 기술 적용 장면을 풍부하게 하고, 5G 기술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 증대시키고, 5G 안전 보장 시스템 구축에 힘을 다했으며, 지속 시행 강화 등 5개 방면 18개 프로젝트를 조치했다.

#### 상하이시에 2020년 신설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모집할 계획

2020년 3월 30일,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당중앙은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건설 진도 가속화" 전략을 배치했고 <상하이시 차세대 정보인프라건설 추진으로 시정 능력과 핵심 경쟁력 제고 3개년 행동 계획(2018-2020) 통지> ([2018] No. 37)에서 전반적으로 요구했으며, 상하이 경제 정보위원회가 최근 "2020년에 신규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모집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승인된 첫 번째 프로젝트 배치 후, 상하이시의 3년 행동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제 2차 인터넷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모집이다. 이 프로젝트의 검토는 여전히 2019년 상하이에서 발행한 <상하이시 인터넷 데이터 센터 건설 지침 (2019 버전)>을 참조할 것이며, 참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침에 부합된 설명 문건 제공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침의 주요 내용, 지도 방향과 핵심 포인트 내용을 장악하는 것이 프로젝트 신청에 아주 중요하다.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연구소 데이터 중심 연구부는 전적으로 건설 지침의 편제와 발표 작업을 지원했다.

## 2. 멀어지는 무료 인터넷 — 이오왕(亿欧网) 제공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상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수익성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사진 1) 출처: 123RF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상태로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수익성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루킨(瑞幸)은 보조금으로 돈을 태워 성장하는 신화를 종료했다.

과거 1 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무료, 저가로 보조하는 것이 표준인 공유경제가 유행했었다.

공유자전거 플랫폼은 서로 연속적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한 번 자전거를 타는 비용이 거의 버스 요금에 근접했다. 디디(滴滴)는 작년 성수기에 베이징의 인터넷 예약 차량의 기본 요금을 14 위안으로 올려놓았다. 공유 충전기는 1 시간에 1 위안에서 최고 8 위안으로 올랐다.

인터넷 비디오 플랫폼은 VIP 회원으로부터 '슈퍼 클릭 방송' 비용을 받는다. 그러나 텐센트 비디오(腾讯视频)와 아이치이(爱奇艺)는 별로 불만하지 않다고 지적받고 있다.

전염병 기간에 음식 배달 업종도 비용이 조용히 올랐다. 판매자들의 불만에 대해 메이투안(美团外卖)은 어쩔 수 없이 거대한 손실 압박' 피드백을 주었다.

모바일 지불의 보급에 따라 사람들이 일찍이 익숙했던 인터넷 무료 서비스는 이미 철저히 접할 수 없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것이 점점 더 비싸지고, 회원제와 연간 서비스 비용으로 대체되었다.

### 숫자야말로 자본이 만족하는 답안

<무료: 비즈니스의 미래>저자 크리스 앤더슨은 일찍이 '그 중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말로 인터넷식 무료를 묘사했다.

야후가 내비게이션 웹 사이트로 시작하고 웹 페이지 광고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무료 정보 서비스를 만든 후 중국의 PC 인터넷 시대에 검색 엔진, 소프트웨어 백신 프로그램, 포털 뉴스, 온라인 게임 등 인터넷 영역이 모두 이러한 무료 전략으로 굴기했다.

무료 백신소프트웨어와 브라우저에 의존하여 조우홍이(周鸿祎)는 360 으로 초기에 대량의 사용자를 모아 무료 전략의 최대 광신자가 되었다.

성다인터넷(盛大网络)은 '쉬투(征途)' 온라인 게임을 무료로 하여 플레이어의 게임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터넷 게임의 판을 크게 넓혔다.

모바일인터넷 시대, O2O 창업열풍은 무료와 보조금 성행으로 최고 고조기를 보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돌아온 것은 오히려 무수한 실패였고 오프라인 상품과 서비스는 온라인과 다르게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투자자의 돈을 태우며 사용자의 마음을 얻는다. 무수한 인터넷 기업이 보조금으로 사용자의 마음을 얻으려 했고 부단히 용자를 얻어와 소비했다. 바꿔 말해 돈을 태우려면 '자본'이 없어서는 안되었다.

"전국 인민이 저가로 커피를 드세요"라던 루킨(瑞幸), CEO 치엔즈야(钱治亚)는 일찍이 "보조금 3년~5년을 지속하고 현재는 흑자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CMO 양페이(杨飞)는 공개적으로 "경쟁상품은 계속 우리가 보조금을 멈추기만을 기대하는데 이런 기대를 갖지 말라."고 했다. 호기로운 배후 1년이 못되어 빠르게 3라운드 용자 총액이 5.5억 달러이며 상장 후 6.95억 달러를 모집했으며 지속 확장하는 탄약이 되었다.

인터넷 차량 예약 업계 인사 옌룽(严龙)은 기자에게 말하길 "당시 디디(滴滴)는 용자로 받은 6번의 자금을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텐센트와 위챗 사이에 지불 경쟁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텐센트는 차를 타는 것이 아주 좋은 모바일 지불 수단이 됨을 보았고 그래서 디디에게 용자를 주고 디디가 돈을 써 사용자가 위챗으로 지불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습니다."라고 했다.

공유자전거 영역에서 ofo 와 모바이크의 대전에서 ofo 는 2년간 10라운드의 용자를 받았고 모바이크는 2년동안 9라운드의 용자를 완성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센터는 통계를 내었는데 2017년말까지 공유자전거 플랫폼은 자본 용자 금액이 170억 위안을 초과했다.

공유충전기 사업도 쾌속 확장한 시기, 일찍이 성립한지 40일이 안 되어 용자금액이 12억 위안을 넘는 기록을 세웠고 2015년 공유자전거가 갓 출시했을 때 획득한 용자금액의 5배였다.

"용자로 한번 돈을 태워 확장하고 다시 용자한다" 인터넷 기업은 이러한 분위기를 타파하기 어려웠다.

'B라운드 죽음' 'C라운드 죽음'이라는 어법은 일부 회사의 종말을 예고한다. 제품 동질화, 수익 모델이 모호하고 경재이 치열한 세부 트랙에서 자본은 B라운드, C라운드 등 용자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많은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후의 돈을 태우는 보조금도 사라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부 보조금도 기업이 상상하던 만큼 사용자를 수중에 유입하지 못했다. 매출 조작은 공인된 비밀이 되었고, 매출조작 행위는 거의 묵인되었다. 숫자의 성장이야말로 자본이 만족하는 답안이다.

**절박한 수익**

"우리는 돈을 태우지 않고서는 오늘날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없었다." 류칭(柳青)은 항상 디디(滴滴)가 돈을 태운 정당성을 말했다.

인터넷 산업 베테랑인 시티엔하오(师天浩)는 인터넷이 소매업, 요식업 등 전통적인 산업을 변화시킬 때 큰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시기에 회사의 속도, 시장에 대한 빠른 점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돈을 태우는 것도 시기가 있다. "만약 업계가 여전히 치열한 경쟁 단계에 있다면 보조금이 우선 할 것이다. 다수의 거인이 혼란스럽게 싸우는 전장에서 그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태울 것이다. 회사가 이미 상장되어 있다면 이익 압박이 있을 것이다. 디디(滴滴)는 비록 상장되지 않아 용자 압박이 없어도 여전히 돈을 잃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압박도 있다."

자본은 이미 몇 년간의 투자 후 회사의 투자 수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무료 방식"은 이미 막다른 곳에 있다.

인터넷 기업 중 인터넷 비디오는 비용을 받는 방식이 가장 확실해졌으며 이는 최근 영상제작물에 대한 판권 비용이 상승했고 비디오 플랫폼이 광고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구매 비용과 자체 제작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수익은 더더욱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텐센트의 인기 드라마인 "천칭링(陈情令)"은 종영하기 1 주일 전, 회원은 30 위안을 지불하여 6 회의 에피소드를 미리 볼 수 있으며 단일 회의 비용은 5 위안이다. 아이치이도 비슷한 "슈퍼 사전 방송"을 가지고 있다.

회원과 사용자는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인사들은 이것이 비디오 플랫폼 지불에 대한 일차 긍정적인 탐색이라고 여긴다.

영상물 판권 업무에 종사하는 화춘(华春)은 영화 및 TV 산업이 "탈세 사건"이후 철저히 동절기로 들어왔고 현재까지도 아직 완화되지 않았으며 비디오 플랫폼은 현재 적자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입은 판권 지출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영상제작회사의 천위예(陈月)측은 회원 가격 인상은 플랫폼 사용자가 안정적인 가치에 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며, 새로운 회원은 많지 않으며, 플랫폼에 남아있는 회원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겉보기에 수익성이 좋은 음식배달 플랫폼도 수익 압박을 받고 있다. 전염병 기간, 상인들은 메이투안(美团)이 커미션을 늘렸다고 했으며, 지역 식당 협회가 집단적으로 "성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요우량생활(优粮生活) 창업자인 옌한(闫寒)은 커미션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행동이라고 분석했으며, 상장한 메이투안(美团)으로서는 배후에 각 당사자들의 이익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옌한(闫寒)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1,2 선 도시의 음식배달 사용자의 습관은 양성되었고 보조금 전환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대규모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침강시장에서 4,5 선 도시에서 보조금 심지어 무료는 아직도 비교적 효과가 좋다. "판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더욱 대상을 잘 맞춰야 한다. 일부 우수한 판매자 위주로 해야 한다."

**좋은 상품을 위해 돈을 쓴다.**

지금은 보조금으로 돈을 태워 사용자를 획득하는 전략이 점차 직접 이익을 찾는 방법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회원은 인터넷 회사가 총이익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온라인 비디오 분야에서 텐센트, 아이치이 Video 유료 회원은 연속적으로 1 억을 초과했으며 업계 발전은 번영 단계에 있다.

과거에는 비디오 사이트가 판권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태웠고 이익을 얻기 힘든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나 무료에서 유료로, 먼저 사용자 트래픽을 광고 수익으로 전환한 다음 다시 회원 지불을 탐색하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상황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이치이의 2019Q4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 수익은 아이치이 수익의 절반을 지원하고 6 분기 연속 광고 수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 년에 텐센트의 게임 부문은 버전 승인 중단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약했지만 2018 년 3 분기에 유료 비디오 회원 수가 8200 만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 사업은 텐센트의 부가 가치 서비스를 증가시켰다.

Costco, Amazon, Netflix 등과 같은 기업의 성공은 모두 회원제와 분리할 수 없다. Amazon Prime 회원은 유료 회원제의 집대성자로 간주된다.

올해 1 월 아마존은 2019 년 4 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4 분기 순매출은 전년 대비 21 % 증가한 874 억 달러였다. 회사의 Prime 회원 수는 1.5 억 명에 이른다. CIRP 데이터에 따르면 Prime 회원은 매년 평균 1,400 달러를 지출하는 반면 비회원은 600 달러만 지출한다.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익 상태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상업적 수익성의 본질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어린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KaDa 스토리는 2017 년에 유료 콘텐츠를 시작했다. 수석운영관 콩용웨이(孔勇伟)는 기자에게 말하길 학부모들이 가치있는 콘텐츠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하나의 분명한 추세는 과거 사용자는 무료시기에 매주 20 권 정도를 읽었다. 유료 후 매주 40 권 이상으로 상승했다. 학부모들도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출시하거나 작가, 작품 등을 지정하는 등 플랫폼에 좋은 콘텐츠를 요구한다."

더 활발한 지불 행위 뒤에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변화의 기초는 항상 더 나은 제품과 콘텐츠 심지어 프리미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음악 판권에 종사하는 왕샤(王萨)에 따르면, 지불하기로 결정하면 사용자는 Vote by foot(편집자 주: 발에 의한 투표. 어떤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이를 떠나 버리고 투자자, 소비자, 주민은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곳으로 이동하게 됨.)할 수 있다. "모두 회원을 유지하고자 하고,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려 노력한다. 누구의 서비스가 좋은가, 누구의 콘텐츠가 좋은가에 따라 회원은 그 곳으로 갈 것이다."

## 맺음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무료, 저렴한 가격에서 유료, 가격 인상에 이르기까지 흥바오, 보조금에 익숙한 사용자는 사용을 포기하기로 선택한다.

연구기구 번스타인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지난 12 개월 동안 Didi 의 승객, 기사 애플리케이션의 일일 활성 사용량이 각각 5%와 23% 감소했다고 했다. 분석가들은 기사 사용량 감소가 인터넷 차량 예약 플랫폼의 기사 보조금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특정 서비스를 포기한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멀리 떨어진 비즈니스 세계가 없지만, 도리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곳을 선택하는 잘못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Vote by foot" 사용자는 창업가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실하게 말하고 있다.

### 3. 음식배달에 이어 책, 아령 배달까지...만물이 배달되는 시기가 올까

— 신라과기(新浪科技) 제공



사진 1) 출처: 신라과기(新浪科技)

배달 라이더의 배송 상자가 더욱 복잡해졌다.

식사, 신선 식품, 약과 같은 오랜 친구 외에도 서적, 휴대 전화, 피트니스 용품과 같은 새로운 회원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베이징, 상하이 및 기타 지역의 많은 서점, 도서관, 출판소는 메이투안(美团), 으러므(饿了么)와 협력하여 배달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화웨이 P40 이 출시된 후 베이징, 상하이, 우씨(无锡)의 수백 개의 화웨이 공식체험관에서 메이투안에 입주했다. 디카농(迪卡侬) 베이징, 선양의 일부 오프라인 매장도 으러마에 배달 서비스를 개통하여 아령, 연줄, 텐트에서 스포츠 스톱워치에 이르기까지 직접 집까지 배송해 주고 있다.

고등학교 2 학년인 으러마 사용자 덩충(邓翀)은 오프라인 서점의 배달 업무에 기대를 표하고 있다. 자신의 집이 서점에서 너무 멀어서 학교에서 학습 자료를 구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일 책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각 도시의 오프라인 서점이 배달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가져다줄 것이며 아마도 책을 사고 책을 읽는 것과 사랑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의존한다면 정말 빠르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사실상, 이것이 배달플랫폼이 처음으로 범주를 확장한 것은 아니다. 이전에 Watsons(屈臣氏), 완닝(万宁), 명창요우핀(名创优品)은 이미 으르므(饿了么)에 등재되었고, 하이란즈자(海澜之家)는 마찬가지로 메이투안과 연합하여 의류의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를 모으고 사용자의 체험을 높여 매장으로 유입되도록 했다. 차이점은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오프라인 비즈니스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많은 질문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일시적인 자구책인가 미래의 발전 추세인가?

그러나 어찌됐든 음식 배달 플랫폼의 경우 소비 장면의 진일보한 연장과 동일하다. 즉, 실물 전자상거래의 기본을 활용하려고 한다. 그 뒤에는 가치 증대를 꾀하는 메이투안이 알리바바와의 사이에 필연적으로 교차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배달 플랫폼, 실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브랜드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신소매영역의 공동 탐색을 의미한다. 전장이 바뀌나 경쟁의 주제는 불변한다.

### 책에서 아령까지 만물이 모두 배달될 수 있다.

실물서점도 배달을 보내는 것을 보고 웨이보 검색전, 원격 사무를 하던 보베이강(傅蓓刚)은 메이투안에서 딸에게 줄 신화(新华)사전 한 권을 샀다. 딸이 급하게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적어도 다음날 도착해야 했다. 전염병으로 외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녀는 메이투안에서 검색을 해 보았고, 적절하게도 그녀의 집 부근에 있는 서점에서 배달해 줄 수 있었다. "정신 식량'을 정말 배달해줄 줄 몰랐다. 한차례 아주 신선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메이투안 앱에서 많은 사용자가 외연서점 중관춘 동성 과기원점(外研书店中关村东升科技园店)에 이러한 평가를 썼다. "배송이 정말 빠르다." "포장이 아주 좋다" 어떤 사용자는 처음으로 메이투안을 사용하여 책을 구매하는 것에 당황하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갈때 매우 흥분했다. "10시 16분에 주문했는데 10시 38분에 메이투안와이마이 라이더의 전화를 받았어요. 배송 속도가 정말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어요!"



사진 2) 출처: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기자는 여러 서점과 메이투안 앱을 통한 배송시간에 대해 온라인 자문을 했고 외연서점 중관춘 동성과기원점(外研书店中关村东升科技园店)의 회신은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 분내 도착한다."고 했다. 종슈거(钟书阁) 서점측은 사용자의 위치와 서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보통 주문 후 15 분이 지나면 배송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는 엔지요우 중관춘점도 방향제, 펜, 데스크 등 등 문화창의용품도 으러마 App 에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직원들은 현재 온라인에 전시된 것이 서점의 모든 제품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챗을 추가한 후에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았다. 배달 속도는 "평소에 음식을 받던 시간과 같다. 아주 빠르다."

배달 라이더에게 책은 음식보다 운송하기 편하다. 한 번 흔들리면 무너지는 케익, 두 번 흔들리면 쏟아지는 국수 국물같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무게 10 킬로그램의 아령으로 바꾼다면?

최근 종합 스포츠용품 소매업체인 디카논(迪卡侬)은 으러므(饿了么)에 등재했다. 베이징, 심양 일부 매장에서 이미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아령, 요가 매트 등 기본 스포츠 장비, 에어볼, 부메랑을 포함하여 첫 번째로 200 개가 넘는 제품을 선택해 배치했다. 상품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후 30 분 이내에 집으로 배달될 수 있다.



사진 3) 출처: 신랑과기(新浪科技)캡처

온라인에 노점을 내고 효과는 어떠한가? 3 월 20 일부터 3 월 22 일까지 메이투안 와이마이와 42 개 온라인영업을 하는 오프라인 서점이 연합하여 가정 독서 이벤트를 벌였다. 메이투안은 일부 상품이 최대 100 위안을 채우면 50 위안을 할인해주고, 제한시간 내 무료배송 해준다는 전제하에 3 일동안 1000 권에 가까운 책을 판매했다. 외연서점(外研书店中矣村东升科技园店)은 공동으로 120 건의 주문을 달성했다. 어린이 그림책, 사회 과학 고전, 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 외에도 수첩, 작업노트, 커피도 인기 있었다. 외연서점 중관춘 동성과기원점(外研书店中矣村东升科技园店)의 메이투안 앱에서의 월간 매출은 196 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장 내 일부 도서의 판매량은 여전히 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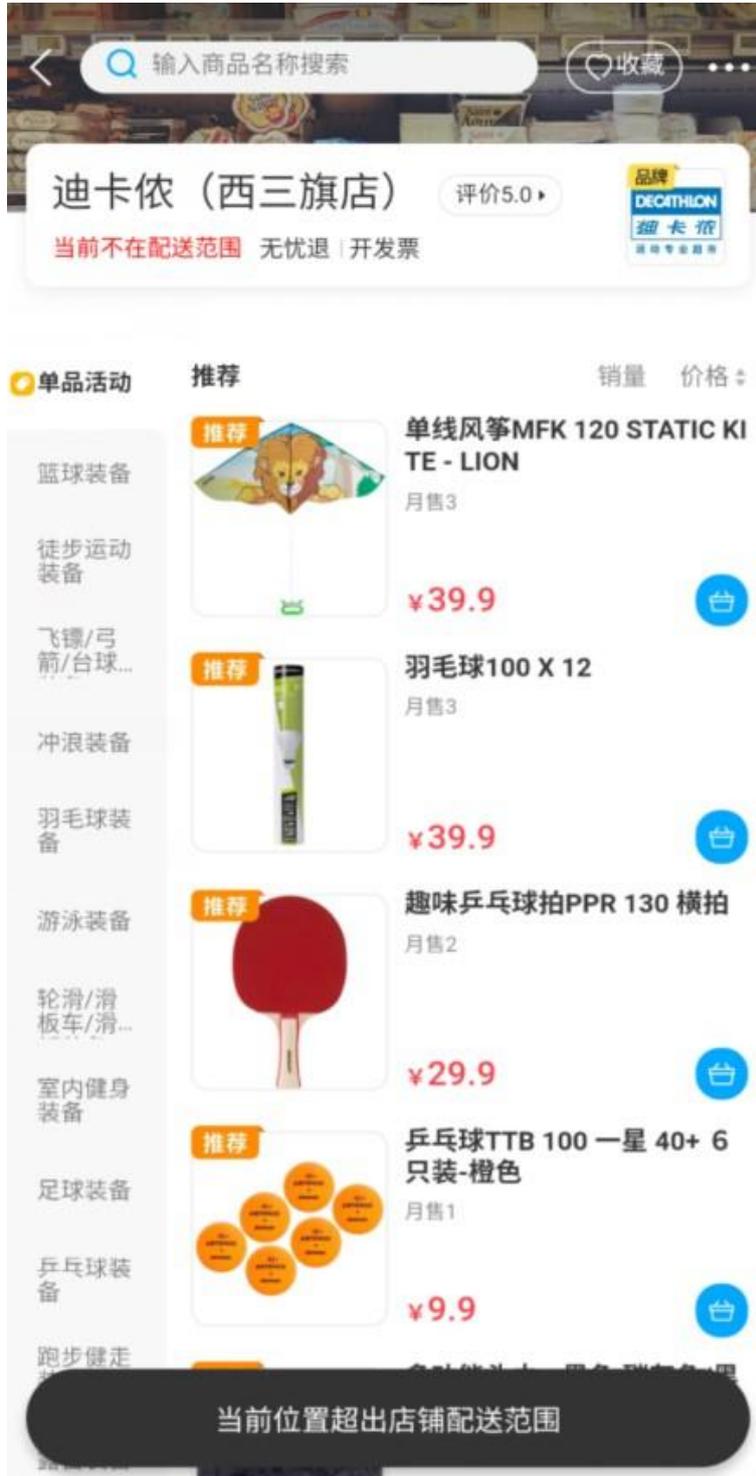


사진 4) 출처: 신랑과기(新浪科技)캡처

그리고 으르므(饿了么) App 베이징 지역에 있는 디카농(迪卡侬) 매장의 월간 판매량은 최대 17 개이며, 각 매장은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단선 연, 배드민턴 등 기타 장비를 판매한다. 더욱이 어떤 사용자는 아이들이 놀게 하도록 구입했다고 했다.

### 전염병 상황에서의 자구책, 양측은 각자 생각이 있음

메이투안의 소개에 따르면 베이징시와 메이투안은 3 월 첫째 주에 "오프라인 서점 + 메이 투안 플랫폼 계획"산업 협력 프레임 체결했으며, 먼저 베이징도서빌딩(北京图书大厦), 신화서점(新华书店), 중신서점(中信书店) 등을 포함해 72 개 사 오프라인 서점이 입주하기로 했다. 목적은 사용자의 독서 수요를 만족시키고 오프라인 서점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으르므(饿了么)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서점과의 합작은 양방이 신영역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공동 선택의 결과라고 했다.

결국 일부 사용자에게 독서는 막 수요로 하는 것이다. 대학 4 학년생은 고충을 털어놓길, 전염병의 원인으로 잠시 학교로 돌아갈 수 없지만 졸업생으로서 논문도 써야하고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나의 책은 모두 학교에 있고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작은 도시 물류는 불편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새로 구입한다면 최소한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책을 배달해준다면 아주 편리하다."라고 말했다.



사진 5) 출처: 상관신문(上观新闻)

도서 전자 상거래를 담당한 공딩(龚定)은 현재 "서점 + 배달 플랫폼"은 주로 교재, 교육 보조 자료, 참고서적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보다 응급 지향적이며 배달 플랫폼의 배송 이점을 더 잘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문화 사회 과학 서적을 읽고 싶어하는 사용자인 메이장(梅疆)은 도리어 위의 범주 외에도 어떤 때에는 독자가 예를 들어 마음이 동해 어떤 책 한권을 읽고 싶을 때 소셜 플랫폼에서 찾아보다 추천을 받은 후, 당시에는 바로 책을 읽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배달은 자신이 나가 살 필요가 없고 인터넷 구매보다 더 빠르다. 인터넷 구매는 상품이 도착되길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아주 읽고 싶던 그 때 느낌이 아닐 수 있다."

사용자 관점에서 이것은 실제로 계획된 소비에서 인스턴트 소비로의 진화와 동일하다.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도 좋고 오프라인 휴대폰과 스포츠 기기 상점도 좋다. 그것들은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더 풍부한 운영 수단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체 운영 모델을 혁신하고 더 나은 소비자 서비스 경로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왕징사 전자 상거래 연구 센터(网经社电子商务研究中心)의 라이프 서비스 전자 상거래 분석가인 천리팅(陈礼腾)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의 사업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현금 흐름을 증가하고,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 발전을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화 탐색을 가속화시켰고, 변환 및 업그레이드의 기회가 되었으며 배달 플랫폼의 배송 자원을 식사 시간외에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천리팅(陈礼腾)은 도서 이 분류에서만 보자면 "서점 + 배달 플랫폼"과 비교하여 온라인 전자 상거래 가격이 더 저렴하고 선택의 폭이 넓고 서비스 시스템이 더 완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일한 단점은 배송 효율이 다소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사용자의 실제 소비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서점과 배달 플랫폼 간의 협력은 아직 좋은 발전 전망을 보지 못했고 보다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모델을 탐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전자 상거래에서 집으로, 메이투안과 알리바바는 육박전을 하고 있나?

닐슨(尼尔森)이 3 월에 발표한 <전염병 상황하의 중국 소매업의 변혁과 기회 심도 분석> 보고서에서 말하길, 67%의 소매업은 오프라인 루트를 개척하고자 힘쓰고 있다고 했고, 집까지 도착하는 업무를 가속화하고 여러 루트 융합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강화에도 보편적인 관심을 쏟고 있고, 전염병 상황을 경험한 소매 산업은 새로운 변혁을 겪고 있다고 했다.

지불 속도를 높이고 판매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소매 업체가 주목하는 새로운 추세일 수 있다. 그리고 배달 플랫폼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

전자 상거래 분야의 한 학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며 이는 사용자의 다양한 유형의 소비 장면을 개발하려는 메이투안 등 기타 배달 플랫폼의 탐색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음식 사업에서 휴대폰 배달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카테고리가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소비 빈도를 생성하여 더 많은 판매자가 참여하게 되며,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 익히 보는 다자간 효과이며 실현 가능한 장기 이익 모델이다.

작년에 열린 제 3 회 소매 혁신 서밋에서 메이투안 디엔핑(美团点评)의 고급 부총재 왕푸중(王莆中)은 말하길 배달은 서비스 산업과 소매 산업의 교차점이라고 하며, 메이투안 산고우(美团闪购)는 30 분 이내에 배송되는 LBS 전자 상거래 제공 업체가 되기를, 소매의 온라인화 가속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메이투안이 소매업을 향해 진군하는 동안 알리바바 등 전자 상거래 회사도 오프라인 매장을 표준하여 빅데이터 구동을 통해 오프라인 융합을 실현하는 사람, 상품, 매장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6) 출처: 왕뤼(网络)

으러므(饿了么)측은 본지에 소매 카테고리를 포함한 지역 생활의 "새로운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으러므(饿了么)의 핵심 전략이며, 판매사, 산업과 알리바바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즉시 배송 + X"와 같은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카테고리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배달에는 천장이 없다."고 말했다.

만물이 모두 배달될 수 있는 배후는 만물이 모두 집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것이고, 배달 플랫폼이 배송 핵심능력을 지원해 만드는 동경하는 궁극의 비즈니스 형태인 것이고 메이투안과 알리바바가 피차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메이투안은 올해 실물 전자 상거래를 피하고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 전자 상거래를 선택했지만 양측의 사업 범위는 부단히 확장하고 이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알리바바는 창고에서 집으로, 상점에서 집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메이투안은 음식 배달 트래픽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 장면과 더 광범위한 서비스 범위를 시도한다. Alipay가 디지털 라이프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했을 때, "새로운 출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외쳤으며, 메이투안 와이마이(美团外卖) 공신이 현장을 떠날 때, 전자상거래의 노병이 무대에 등장했다. 메이투안 연합 창립자, S-team 멤버, 고급부총재 왕휘원(王慧文)이 세부 관리업무에서 퇴출하려 하고, 일찍이 수직 전자 상거래 하오러마이(好乐买)의 CEO 를 역임했던 리슈빈(李树斌)은 S 팀원으로 승진했다. 양측은 또다시 육박전을 벌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천리텡(陈礼腾)은 요식업 판매자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상점이라며 소비 빈도율이 비교적 높고 배달 가능성을 구비했기에 현재 메이투안은 배달 서비스의 범위를 넓힌 것이며, 실물 전자상거래의 내지까지 진입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메이투안이 현재 자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만물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음식 배달은 단일 방향으로의 1 회 성공이다. 이어서 메이투안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알리바바는 전자 상거래와 현지 생활 서비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단번에 이뤄지는 것은 없다.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했다.

## 4. 양자컴퓨터 시리즈 45) 과학기술 열풍, 아마존·IBM·마이크로소프트 양자컴퓨터 세계화 추진 — 쇼우지중국(手机中国) 제공

최근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을 출시한 Honeywell 까지 그들은 모두 새롭고 복잡한 컴퓨팅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솔루션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만약 어떤 한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인용 컴퓨터의 IBM 과 스마트폰 분야의 Apple 과 같이, 이 혁명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애널리스트 회사인 Tractica 는 2020 년 말까지 양자 컴퓨팅 지출이 현재 2.6 억 달러에서 91 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1) 출처: CNET. IBM 의 50qubit 양자컴퓨터

수많은 양자 컴퓨팅 회사는 이미 수년간의 연구를 시작해 왔으며,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더 복잡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산할 수 있어 미래 일어날 수 있는 계산문제에 대해 더 많은 솔루션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도시 교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차량이 더 효율적으로 택배를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이미 22.5 만 명이 IBM 의 Quantum Experience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시도했으며, 100 개 이상의 회사에서 IBM Q 의 고급 유료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 아마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인 Amazon Web Services 를 통해 양자 컴퓨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Amazon Braket 는 현재 초기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공되므로, 연구원과 개발자는 D-Wave, IonQ, Rigetti 의 양자 컴퓨터를 실험할 수 있다. 아마존은 또한 양자 컴퓨팅 센터를 통해 양자 컴퓨터 기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에 Azure Quantum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비공개 방식으로 합작파트너 Honeycom, IonQ, QCI 에게 양자 컴퓨터를 제공할 계획이며, 자신의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를 구축할 계획이다.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 1. 2020 년 중국 신생 블록체인 기업 4000 곳 이상...총 2 만 8000 여개 달해

(COIN READERS, 2020.04.27)

올해 중국에서 약 4000 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새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27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토큰헬은 블록체인 전문 분석업체 롱해시(Longhash)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현재 중국에 정식 등록된 블록체인 기업이 2 만 7694 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 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중국 남부 광둥성이다. 올해 들어 기업 수가 5% 가량 증가하며, 현재 2 만 3786 곳에 이른다.

원난성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블록체인 기업 수가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원난성은 5300 개에서 5277 개로 오히려 기업수가 감소했다.

올해 신설된 블록체인 기업은 4069 개에 달한다. 연간 블록체인 신생기업 수는 암호화폐 호황기인 지난 2017 년과 맞물려 증가하기 시작했다가 지난 2018 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

작년 10 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블록체인 활성화 발언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은 독자적인 기술 혁신을 위한 핵심 돌파구"라며 "기술 개발과 산업 접목에 힘써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등 중국 대기업들도 자체적인 블록체인 응용 솔루션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무역금융, 공급망 관리, 디지털 인보이스 등 금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다.

이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블록체인을 국가 정보 인프라의 필수기술로 지목하고, 기술 통합을 위한 협력 연구, 기술개발 지도의견 수립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지속가능한 신흥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중국 전역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주도하고 국영 통신사 '차이나모바일', 결제 네트워크 '유니온페이' 등이 협력·개발한 국영 '블록체인네트워크서비스(BSN)'가 최근 현지와 해외에서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 2. 정부 주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상용화 시작한 중국...기대 효과는

(blockpinpress, 2020.04.27)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가 글로벌 상용화를 시작했다.

27 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 등에 따르면 지난 25 일 중국 국가정보센터(SIC)가 이끄는 BSN 프로젝트는 화상 간담회를 통해 BSN 출범을 공식화했다.

BSN 은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신뢰할만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타 지역이나 기업 등에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비용은 연간 400 달러 미만으로 추정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BSN 개발협회 산 지광(Shan Zhiguang) 회장은 BSN 에 대해 “하이퍼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이오스(EOS) 등 다양한 블록체인의 플랫폼을 엮어내려는 ‘생태계 플레이’ 혹은 ‘인터넷 환경’”이라고 표현했다.

BSN 의 도시별 노드는 해외 8 곳을 포함해 총 128 개다. 해외의 경우 파리, 시드니, 상파울로, 싱가포르, 도쿄, 요하네스버그, 캘리포니아다.

이번 출시를 앞두고 BSN 은 약 6 개월 간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당시 400 여 개 기업과 600 여 명의 개발자가 테스트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SN 프로젝트에는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후오비차이나 등도 참여했다.

### 3. 미 비트코인 투자자들 채굴 시장 중국 장악 우려 (BLOCLMEDIA, 2020.05.01)

미국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중국이 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져 비트코인 생태계를 장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1 일(현지시간) 데일리호들이 보도했다.

제네시스 마이닝이 최근 공개한 2020 년도 비트코인 채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자 중 60%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암호화폐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비트코인 채굴 능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채굴 능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 손에 있을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불안정 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호들은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탈 중앙화’를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생태계를 중앙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중국 업계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4. 지금까지 드러난 디지털 위안의 모든 것 (COINDESK, 2020.05.02)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의 성공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사실상 없다. 어떤 나라는 신용·직불카드에 만족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아직 현금을 선호한다. 어떤 나라들은 QR 코드를 통한 전자지불수단이 활성화했다지만, 그런 곳도 디지털 화폐는 개념도 아직 낯설다. 이런 가운데 인구 최대 국가인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화폐(DCEP)는 차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는 모양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드물지만, 그동안의 입장과 계획의 단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2 일 중국 허베이성 송안신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 시범사업 출범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시범사업일 뿐”이라는 단서가 따라붙었지만, 이 회의에선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구체적 구상이 처음 드러났다. 큰 줄기에는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등 대규모 상업은행들과 앤트파이낸셜(蚂蚁金融), 텐센트 등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운영 파트너 구실을 맡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더욱 눈길을 끄는 건 디지털 위안 시범사업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서브웨이, 징둥수퍼마켓 등 19 개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이었다. 사업 무대는 2017 년 4 월 발표돼 건설중인 신도시 송안신구이다. 역사는 송안신구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남긴 사업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시 주석의 업적이 새겨질 곳에서 디지털 위안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는 것도, 그 사업에 '팍스아메리카나'의 선봉과도 같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시사하는 의미가 작지 않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구상과 관련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이 '인민은행-시중은행'과 '시중은행-이용자'의 2 중 공급-관리 구조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전자가 국제송금과 무역결제 등에 쓰이는 디지털 통화(DC)라면, 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EP)에 해당한다. 다른 나라들이 연구 또는 도입을 검토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 부르는 것과 달리,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을 DC·EP 라 칭해 온 배경이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19 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모두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소비자와 직접 맞닿은 소매 기업이라는 사실은 DC 기능 못지않게 EP 기능이 디지털 위안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는다.

## 5. R3 보고서 "CBDC, 금융기관간 거액 거래가 주요 목적" (THE BCHAIN, 2020.05.04)

미국 대형 블록체인 기업 R3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주된 용도는 금융기관용 거액 CBDC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소비자들이 상거래에 쓸 수 있는 소액 거래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3 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R3 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결제 혁신'이라는 월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 각국 중앙은행이 연구하거나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CBDC 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돕는 도매용 거액 CBDC 라고 설명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도구로서 CBDC 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소액 거래용 CBDC 에 대한 접근은 이후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하이브리드 방식 접근

현재 소액 거래용 CBDC 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 시범 사업 진행을 통해 CBDC 발행과 유통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와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반 소비자용 CBDC 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은행이 CBDC 형태의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은행을 통해 현금이나 적립금, 포인트 등의 형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간접 거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업은 베이징 숭안 신도시를 비롯해 선전, 쑤저우, 시안, 청두 5 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쑤저우시의 경우 공무원 교통 수당을 디지털 위안화로 지급하고 있으며, 스타벅스, 맥도날드, 서브웨이 등 다국적 소매점과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등 중국 기업을 포함한 총 19 개의 소매 기업, 그리고 공상은행 등 4 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23)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장수하는 캐릭터의 비밀은



(2016 년 리우 올림픽 폐회식때 일본 아베 수상은 슈퍼 마리오의 코스프레를 하며 차기 올림픽지 도교를 알렸다.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캐릭터들)

2016 년 리우 올림픽 폐회식때 차기 올림픽 주최국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에 일본 아베 수상이 슈퍼 마리오의 코스프레를 하였다. 그 많은 캐릭터 중에 왜 '슈퍼 마리오' 일까?

주인공이 되는 캐릭터는 한결같이 신비롭고, 어리고, 귀엽고, 용감하고 능력자이다. 그런데 슈퍼 마리오는 멜빵바지를 입은 배가 볼록 나온 콧수염을 한 40 대 중년의 이태리의 맨홀 수리공이다. 웬지 캐릭터치고는 설정이 잘 못 된 것 같다. 그런 캐릭터가 올해로 26 살이 되었다.

슈퍼 마리오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용기와 헌신으로 최종적으로 공주를 구한다.



(3D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슈퍼마리오가 구하고자 하는 공주)

게임은 공주를 향하여 무한 질주를 하면서 코인을 얻으면서 간다. 코인을 얻으면 힘과 재주를 축적할 수 있다. 이것을 얻으면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다. 게임자는 신이 난다. 함정에 걸려 실수를 하면 점수를 잃는다. 함정에 빠지면 게임자는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진 것처럼 아쉬워한다.

슈퍼 마리오와 게임자 사이에는 혼연일체가 일어난다.

'슈퍼마리오가 나이고 내가 슈퍼마리오다!'



(결투하는 게임은 나를 대신할 아바타를 고루 후, 상대하고 싸운다)

결투하는 게임은 나를 대신할 아바타를 고루 후, 상대하고 싸운다. 게임에서 이기면 계속하여 사용하고 지면 새로운 아바타로 교체한다.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런 아바타에 애착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슈퍼마리오의 게이머는 슈퍼마리오와 같이 산다는 생각이 든다.



(왼쪽부터 한때 한국을 대표하는 돌리, 어린아이의 대통령인 뽀로로, 최근 인기 절정의 펭수 캐릭터)

수많은 캐릭터가 세상에 나왔다. 한국에는 아기공룡 둘리가 한때 어린아이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 후 어린아이의 대통령으로 뽀로로로 불렸던 뽀로로가 있었다. 최근 펭수가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인기 절정에 있다. 둘리도 뽀로로도 한때의 인기를 누렸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다. 펭수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둘리와 뽀로로는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어 재미와 꿈을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후 각종 상품에 이들 캐릭터가 활용되어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뽀로로가 그려진 신발과 노트 연필에 더 관심을 가졌다. 캐릭터는 소비자의 소비를 위하여 소모를 위하여 일방통행을 하였다. 쌍방통행을 하는 구조가 아니었다. 소비자는 소비만 하였다. 이런 소비는 한계가 있다. 일방통행적 캐릭터는 소유의 기쁨은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는다. 소유하였지만, 혼연일체는 없다.

슈퍼마리오는 소비자와 혼연일체가 있다. 소비자는 아낄 수밖에 없다. 자기 분신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니 장수를 한다.

한 나라의 수상이 코스프레를 한다.

“당신의 분신이 저입니다. 바로 아베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장수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서로 쌍방통행으로 소통될 때 된다.

#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1. '긴급사태연장'으로 다가오는 '경제정지'가 초래하는 대문제

(동양경제온라인, 2020.4.27)



사진 1) 출처: PIXTA, 왜 '코로나장기화'에 대비가 필요한 것일까?

코로나사태의 영향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4월 7일에 나오고, 연휴 마지막 날인 5월 6일까지 외출 자제 등의 대응이 계속된다. 많은 국민은 여기서 감염확대를 억제하고 연휴 이후에 긴급사태 선포가 해제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계속 참고 있다. 한편 "정말로 연휴까지 끝이 날 것인가"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고 재연장돼 두고두고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스쳐간다.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악을 상정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기본. 단기로 결판나는 바람직한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고민의 시나리오도 상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왜 장기전예의 대비가 필요한지, 거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요구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 ■ '코로나 단기 결전' 목표로 하는 아베수상

올해 1월 16일 국내 최초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 기본 자세는, "단기 결전"이다.

아베 총리는 2월 26일 "최근 1, 2주가 감염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후에도 거듭 "이 1, 2주가 고비"라며 단기 결전에 대한 협조를 호소해 왔다. 그리고 "경제를 V자 회복시킨다"(3월 17일)라며 급회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와의 싸움은 결말이 나지 않고 석 달이 지나 긴급사태 선포, 전국 확대로 치닫게 되었다. 현재는 "이 긴급사태를 1개월만에 탈출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도시 봉쇄 등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긴급사태 선포는

정부가 가진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최종무기"를 본 국민의 마음에는 "역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기대와 "이것으로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향후를 점치는 것은 어렵지만, 유효한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에는 보통 2~3 년, 이번에 상당히 서둘러도 1 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 조기에 감염 억제에 성공했다고 해도, 홋카이도등에서 일단 진정된 감염 확대가 재가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안이하게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 단기로 싸움이 결판날 가능성은 낮다고 각오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은 긴 마라톤이다. 도시 지역에서 시중 감염이 확산되어, 당분간 전력 질주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다. 또, 그 후의 지구전에 준비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2 년까지 소셜 디스턴싱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모두가 단기로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장기전을 각오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경제대책'은 감염대책만큼 중요

그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장기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감염 대책'에 대해서는 감염자 수의 증대에 대비하여 검사체제나 치료체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한편, 병원·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의 체제 정비가 열쇠가 된다.

단지, 동시에 중요한 것이, "경제 대책"이다. 군사학에서 "단기전은 전술로 결정한다, 장기전은 병참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싸우기 위해서는, 필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체제와 경제력을 빠뜨릴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연휴중에 감염 확대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에 악영향에 눈을 감고, 국민에게 외출 자속이나 접촉 8 할감소를, 기업에 휴업이나 재택 근무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더욱이 1 년, 아니 반년이라도 현재의 대책을 계속하면,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미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 분기 대비 ▲25%(골드먼삭스 추산)로 괴멸 상태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 정지 상태가 몇 개월 더 지속되면 확실히 도산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맨먼저 구조조정 표적이 된 임시파견 등 비정규직의 공상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업이 없어지면 정규직도 안전하지 못하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살자의 증가도 생각할 수 있다.

1 개월 정도의 단기간이라면, 많은 국민이 급부금 등 국가로부터의 지원으로 어떻게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상태가 팍박한 일본에서는, 추가로 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1~2 회가 고작. 급부금에 의지해서 장기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 휴업 협력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도산·실업, 그리고 경제적 죽음을 막으려면 기업은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 국민은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지금은 단기전의 한창중이므로, 경제 이야기를 하면, "감염과 싸우는 중요한 때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자속에 응하지 않는 비국민!"이라고 두들겨 맞는다. 하지만 경제 무시는 단기전에서는 맞지만 장기전에서는 틀리다. 장기전에서는 감염 대책과 경제 대책을 두 바퀴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 장기전에서 요구되는 "경제대책"

장기전에서의 "경제 대책"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경제 활동을 "원칙자속"에서 "원칙자유"로 방침 전환한다. 현재 도도부현 단위로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정촌 단위로 세분화하여 세심하게 대응에 차이를 둔다. 예를 들면 도쿄도에서도, 도내 전역 일률적으로 활동 자속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 확대가 계속되는 미나토구 · 시부야구등에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 (원칙 금지)하는 한편, 감염 리스크가 작은 홋사시 · 아키노시 · 미야케지마 등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한다(원칙 자유).

이 방침 전환으로, 기업은 사업소가 소재하는 지역별의 활동 계획을 만들어, 원칙자유 지역에서는 사업 활동을 추진한다. 또, 원칙금지 지역으로부터 원칙자유 지역으로의 사업 활동의 이관을 진행시킨다.

"지금 공장을 가동시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뿐"이라고 한다면, 마스크의 생산을 시작한 샤프와 같이, 기존 제품에 구매받지 않고, 사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제품을 지혜를 모아 찾자. 게다가 비접촉형 비즈니스 등 감염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사업의 창조가 기대된다.

일하는 쪽도 감염 위험이 작은 사람부터 일을 시작한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60 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중증화·사망의 위험이 높고, 젊은층에서는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게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 원칙적으로 자유 지역에 사는 현역 세대에게는, 고령자나 원칙 금지 지역의 거주자의 몫까지 열심히 일하면 된다.

국가에는 장기전의 방침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기업·국민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용자·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 나라에 의한 비즈니스·인재의 매칭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이번 위기로 음식업이나 호텔업에서는 종업원이 남아 있는 한편, 농업에서는, 수확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기능 실습생이 귀국해 심각한 일손 부족에 빠져 있다. 국가가 광역적으로 매칭을 하면 사업 지속과 실업 억제가 실현되어 일석이조이다.

#### ■"장기전 대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치노 타니 전투, 오케하자마 전투, 일본해 해전 등 일본인이 극찬하는 싸움은 모두 단기 결전. 반대로 장기전은 임신의 난, 오닌의 난, 태평양 전쟁 등 질질 끌고 헤매는 초라한 싸움 뿐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인은 단기 결전을 좋아하고 장기전은 싫어하는 것 같다.

태평양 전쟁에서 도조 히데키 총리는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의 전의를 상실시켜 단기간에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단기전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질질 끌며 장기전을 대비하지 못한 일본은 경제력, 국력 차이로 미국에 패했다.

태평양전쟁 이후의 위기라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태평양 전쟁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장기전에의 대비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코로나에 지금 던져지는, 사회과제 해결형 스타트업의 진가는?

(Forbes Japan, 2020.4.27)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돼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성과 경제성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제형 스타트업"으로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 일례가 보육시설 전용으로 IT 서비스의 제공 등을 실시하는 "유니파"(도쿄도 치요다구)와 의료품의 생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타텔"(구마모토현 쿠마모토시). NPO 등과 공동으로, 0 세부터 5 세까지의 유아 교육·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에 대해서, 씻을 수 있는 마스크를 무상으로 전달하는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진 1) 출처: Forbes Japan, 펄후타바 후쿠야마공장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모습

4 월 하순에, 첫번째 마스크가 코다마 보육원(사이타마현 혼쥬시)에 도착해, 보육사로부터 "반복사용과 착탈을 건딜 수 있는 튼튼한 마스크는, 매우 고맙다"라고 호평을 얻고 있다.

전국의 보육시설은 48000 여 개. 유니파의 데이터에 따르면 4 월 7 일 긴급사태 선포가 나온 뒤에도 의료종사자나 일을 쉴 수 없는 부모를 위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시설이 많다고 한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육교사 마스크 부족이다.

보육 현장은 다수의 아이와의 접촉이 불가피하지만, 요코하마시의 임의 단체가 3 월에 실시한 앙케이트로 96%가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고, 보육사로부터 불안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4 월 10 일부터 희망시설 신청 접수를 시작해 이미 2000 개가 넘는 시설로부터 문의가 있었다. "상상 이상으로 응모가 있어, 씻을 수 있는 마스크의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실감했다"라고 유니파 이사 CFO 의 호시 나오토는 이야기한다.

'우리 고객의 보육시설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스스로 800 장 정도 확보했지만 고객은 7000 개 시설 이상. 게다가 1 회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마스크로는 매우 부족하다. 부직포를 사용한 마스크는 감염방지의 관점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료종사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육 시설 전용으로 씻을 수 있는 마스크를 보낼 수 없을까 생각했다"(호시씨).

머스크는, 유니파와 이전부터 교류가 있던, 병아보육·일시보육을 운영하는 "인정 NPO 법인 노벨"의 이사, 쿠와다 요시키씨의 소개로, 시타텔과 노포 스트레치 팬츠 전문 메이커의 "팔레·후타바"(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가 개발. 스트레치 팬츠에 사용하는 특수한 초신축 소재로, 사이즈에 관계없이 피트되어, 몇 번 빨아도 보풀이 적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의류 생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타텔이 이 마스크를 증산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확보했다.

6 월말까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의 READYFOR(레이디 포)에서 2500 만엔의 기부를 모집해, 최저 2000

시설에 20 매씩, 합계 4 만개를 무상으로 배포한다. 문의가 많아 배포처를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부가 부족할 경우 차액분을 전액 유니파가 자금 부담한다.

### 경제 위기 속에서 리스크를 감수한다

사회과제 해결형 스타트업의 금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채무보증 형태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은, 사회의 과제를 해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제성과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 과제 해결형 스타트업"을 자칭하고 있다. 미증유의 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런 사회공헌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생각했다.(호시씨)

유니파와 시타텔등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3 월 28 일.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온라인만 주고받다가 2 주 뒤에야 프로젝트를 출시했다. "같은 뜻을 향해서, 각사에서 의견을 서로 내, 대기업에는 없는 벤처의 기동성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호시씨는 되돌아본다.

호시씨가 유니파에 가세한 것은 2019 년 6 월. 이전까지는 모건스탠리증권의 M&A 뱅커였다. 뉴욕 부임 중 아이가 태어나 딸에게 진심으로 사랑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되어. 도쿄에 귀국해 약 3 년 후에 유니파로 전직했다. 이직률이 높은 보육사나 보육시설의 사회과제를 해결하고, 여성 활약의 추진이나 노동 인구의 증가를 촉진하는 회사의 비전에 끌렸기 때문이다.

2017 년에 일본은행계 최초의 임팩트 투자를 실시하는 "육아 지원 펀드"를 시작해 유니파에 출자하고 있는 신생 기업 투자의 임팩트 투자 팀.시니어 디렉터 黄春梅씨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회과제 해결형의 스타트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진가가 추궁받고 있을 때. 회사를 지키면서도 사회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로서 봐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니파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는 없어 보이지만 어린이집 현장이라는 고객에 기대어 안전을 제공한다. 팬이 되는 고객층, 잠재 고객의 증가로 연결되어, 회사의 중장기 성장에도 이바지하는 구조이다. 사회성과 경제성 양립이라는 임팩트 투자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 3. 아베정권의 "쇄국정책", 이제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현대비즈니스. 2020.4.28)

외국계 기업부터 보호한다고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악법, 개정외환법 적용 대상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를 추가해 외자에 의한 매수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틈타, 유럽등에서 기업 매수 공세를 걸고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의 그림자를 무서워한 것 같다. 그러나, 원래 일본에 지켜야 할 의약품 메이커나 의료기기 메이커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다.

한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2030 년대가 되어도 일본의 경제성장을 5% 정도 낮추는 '이력효과'를 남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30 년대에는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한다고 한다.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그런 때에 무역이나 자유로운 자본거래를 경제 살리기에 활용하지 않고 에도시대와 같은 쇠국을 지향하는 아베 정권의 개정 외환법 정책은 국민경제와 삶에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

사실상의 '아베 정권·쇠국 정책 강화'를 전한 것은 4월 23일(목요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조간 1면의 '외자 매수 규제, 의약품·의료기기를 대상으로'라는 기사다. 이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의약품 의료기기 업체를 5월 시행할 개정 외환법의 규제 대상에 더해 외국 기업의 매수로부터 엄격히 보호한다는 것이다.

감염증 백신과 의약품, 인공호흡기 등 고도의료기기를 개정외환법의 안전보장상 특히 중요한 업종에 추가해 중국 업체들의 인수를 사실상 막겠다는 것으로, 세계적 쟁탈전이 우려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국내 안정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레이와(현재의 일본연호)의 쇠국'이다.

이 기사에 있는 5월에 시행하는 개정외환법은 골치덩이다. 보호주의적이고 레이와의 쇠국으로 이어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개정외환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원자력 전력 통신 등 안전보장 분야와 관련된 인프라 기업에 대한 외국자본 출자 규제를 강화한다는 사전 신고 대상을 1%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다.

또, 이미 출자한 일본 기업에, 중요한 사업의 매각이나 임원 선임을 제안할 때도, 향후 "사전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후, 소관 관청 중 하나인 재무성은 3월 중순에 개정외환법의 정부령안을 발표. 외국 금융기관 등 규제의 예외를 나타내는 한편, 일반 외국인 투자자가 1%이상의 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나라에 사전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군사 전용 가능한 범용품의 제조, 사이버 시큐리티, 전력, 가스, 통신, 상하수도, 철도, 석유의 12 업종을 정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는 상장기업 400~500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회사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만연의 결과, 정부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여, 12 업종에 추가할 방침을 굳힌 것 같다.

아베 내각은 4월 24일(지난주 금요일) 외환법 개정에 따른 정부 성령과 고시에 대해 각료회의를 거쳐 이 법을 5월 8일 시행하고 6월 7일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상장기업 중 어느 회사가 규제에 해당하는지 명단 공표는 당초 예정됐던 4월 중 5월 8일로 연기했다.



사진 2) 출처: GettyImages

### 세계 각국 외자 규제 흐름

규제 강화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것이, EU(유럽연합)나 미국의 움직임이다.

모두 중국 기업의 인수 공세 등을 경계한 것으로 EU는 지난해 안보를 해치는 투자를 규제하는 새 규칙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가 이미 규제를 강화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독자적인 외자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국도 지난 2월 외자의 미국기업 투자안건을 심사하는 CFIUS(대미외국투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시행했다. 이 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3개국 기업에 의한 중요 인프라를 보유하는 미국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면제했다.

한편, 일본 기업은 그러한 특례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경제 외교근이 초조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런 풍조에 편승해 일본도 외자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정말로 있는 것일까.

원래 외환법은 대외거래나 국내 외화거래 등을 최소한의 필요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이라고 한다. 안전 보장이 주된 목적으로, 재무성, 경제 산업성, 일본은행등의 소관이지만, 각 산업을 취급하는 경제 관청도 공간이 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행 외환법이 오랫동안 원칙적으로 투자의 자유를 표방했다는 점이다. 전후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는, 국내 산업을 지키면서, 귀중한 외화를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에 돌리기 위해 대외 거래가 제한되고 있었다. 1980년대에 걸쳐 자유화로 방향을 잡은 이후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원칙적으로 자유로 하는 지금의 법규제가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 외환법에 대해서도 재무부는 투자 자유의 대원칙은 불변이라며 국가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투자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탄력 있는 대내 직접투자 제도를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잉 규제가 미치는 영향

이에 대해 외국금융기관이나 소버린웰스펀드로부터 투자애로가 속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외국투자가 자신이나 개정외환법상의 밀접관계자가 임원에 취임하지 않는 등의 면제기준을 준수하면 사전신고를 면제해주는 장치 등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재무성은 같은 취지로, 소버린·웰스·펀드와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도, 이사회 등에 참가하지 않는 등의 추가 기준을 만족시키면, 코어 업종의 10%미만의 주식 취득에 대해 사전 신고를 면제하는 구조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해외 투자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 염려가 완전하게 불식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12 년 전인 2008 년 5 월 영국 투자펀드인 더 칠드런즈인베스트먼트펀드(TCI)가 J 파워(전원개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일 때 일본 정부가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필자는 당시 혼슈와 홋카이도를 잇는 송전선을 가진 유일한 전력회사인 J 파워가 외국계 펀드의 머니게임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며 이 외환법에 근거한 지시를 지지했다.

하지만 일본 증권사를 포함해 자본시장 측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반발은 격했다. 뒤집어 말하면 외국 투자자가 받은 충격은 그 이상으로 컸다는 것이다. 약 5 개월 후 TCI 는 보유주식을 J 파워에 매각하고 이 안건에서 철수했다.



사진 3) 출처: GettyImages

### 외국인 노동자가 사라진다?

즉 개정 전의 외환법은 충분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개정함으로써 과잉규제가 가능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 과잉규제가 초래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가 에도시대와 같은 "쇄국"이며, 예를 들면 중국 기업에 엄격하게 운용하고, 구미제국의 기업에는 느슨하게 운용하면 "블록 경제체제"이다.

아베 정권이 쇠국이나 블록 경제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정책이 이미 각의 결정을 마쳤고,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레이와 2년도(2020년)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대책을 위한 국내 투자촉진사업 보조금이다.

중국 등에 유출된 자동차나 전기, 기계등의 메이커의 제조 거점을 불러 들여 써플라이 체인(supply-chain)을 국내에 재구축하려는 것으로, 이번 보정에는 2200억엔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또 조만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하는 조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 취득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60일간 막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고된 미국 국민이 해외에서 유입된 새로운 이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실업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같은 조치가 취해질 만하다.

###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느냐

하지만, 이들 3가지, 외자에 의한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로 유출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국내 재편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배척, 즉 쇠국이나 블록 경제 체제 만들기에 의해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수습 후의 경제 살리기를 도모하려는 상황에 이런 모순에 찬 전략은 없다.

애당초 전후 선진국의 블록 경제체제 지향이 일본이나 독일을 궁지에 몰아넣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단이 열리는 큰 계기였음은 폭넓게 알려진 이야기이다.

게다가, 이번 신형 코로나 감염증의 유행에 수반하는 일본 경제의 침체는, 벌써 전후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깊은 싱크탱크인 일본 경제 연구 센터가 4월 24일에 공표한 단기 경제 예측의 개정을 보면, 연내에 외출 자숙이 해제되어도, 2020년도의 일본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8%"라고 하는 비참함이다.

이 싱크탱크는 일단 낮아진 성장궤도를 V자 회복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2030년이 돼도 경제성장률을 5% 정도 밑으로 끌어당기는 이력효과가 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상사태에 쇠국이나 블록 경제체제가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자유무역체제 하에서의 수출확대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도 우리 일본인의 삶도 성립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치다 토오루 町田 徹 (경제 저널리스트)

## 4. 코로나 후 중국에 생기는 '새로운 셰어 에코'. 일본 기업의 '중국 철수'에 대비 (HUFFPOST, 2020.4.27)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전차의 손잡이나 도어 노브등을 만지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분도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된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분야가 있다.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자동차등을 사람에게 임대하는, 셰어링 이코노미다. 셰어 자전거, 카 셰어, 민박 등은, 외출 자제나 위생 관념의 강세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후죽순처럼 셰어비즈니스가 생겨난 중국에서는 특히 심각하다. 한편,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셰어의 개념이, 코로나에 의해서 탄생되고 있다.



사진 1) 출처: HUFFPOST, 중국거리에 늘어선 쉐어자전거 ( 2019 년 · 북경 )

### 백화요란의 중국 세어에코

중국은 세어링 이코노미 종류가 다양하다. 거리에는 메이커 마다 다른 색상의 쉐어 자전거가 죽 늘어서, 자전거에 붙은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잠금이 풀려 곧바로 탈 수 있다.



사진 2) 출처: HUFFPOST, 상해시에 설치된 쉐어 화장박스인 '17Beauty' ( 2019 년 )

배차 앱인 DiDi 등을 사용하면 누군가의 차를 탈 수도 있고, 중국 국내를 여행할 때는 途家앱 등으로 민박을 찾을 수도 있다.

더욱이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등 섯트가 갖춰져 있어 외출할 때 간편하게 화장을 고칠 수 있는 '셰어화장박스' 등도 화제가 됐고, 거리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도 설치됐다.

이러한 서비스는 신형 코로나로 외출 제한이 계속되는 동안, 당연히 이용은 격감. 제한이 해제되고 통근등이 재개됨에 따라, 점점 명암이 나뉜 실태가 밝혀지게 되었다.

우선은 쉐어 자전거이다.

쉐어 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美团单车"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인 외출 제한이 실시된 1 월이나 2 월은 예년과 비교해서 큰폭으로 감소. 그러나 3 월 말에는 일부 도시에서 이용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등 벌써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4 월에 들어서면 쇼핑 에어리어나 관광지등의 이용도 되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쉐어 자전거 "헬로 오토바이"도 신형 코로나 영향을 포함해도 100%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등 강세다.

쉐어 자전거는, 중국에서는 원래, 지하철역에서 직장이나 자택등으로 향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 많아, 짧은 거리를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로서 정착하고 있다.

통근고객이 돌아오면 이용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코로나화를 극복할 공산은 높다.

한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민박이다.

여행자에게 자택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민박은, 일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참가하는 사업자가 잇따랐다. 민박은 중국에서도 성행해 여행자와 민박 매칭 사이트로는 '途家'가 유명하다.

그 '途家'의 통계에 의하면, 4 월 상순에 있던 휴가철의 예약수는, 전년의 30%정도로 떨어졌다. 적은 손님을 잡기 위해 숙박비도 큰 폭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금년의 숙박비의 평균은 280 위안(약 4200 엔)으로 예년의 8 할 정도였다고 해, 민박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사진 3) 출처: HUFFPOST, 공장 이미지

중국에서는 신형 코로나로 46 만 개 이상이 도산했다고 여겨져 실제로 실업률도 치솟았다. 향후, 여행 수요가 돌아올지는 불투명하고, 민박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 제조력을 쉼어

이러한 상황속, 전문가는 "새로운 쉼어 에코"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전문인 대외경제무역대학(북경)의 니시무라 유사쿠 교수는, 쉼어에코 업계의 곤경에 대해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과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 드는 것은 자연. 한편, 민박이나 라이드 쉼어와 같은 서비스는 뿌리 깊은 수요는 있기 때문에, 코로나 후에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부활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한다.

게다가 니시무라 교수는, 향후 주목받는 분야로서 공장이 생산 설비등을 쉼어 하는 "제조업의 쉼어(쉼어링·매니팩처)"를 든다.

"간단히 말하면, 가동률이 낮은 공장의 제조 능력을 쉼어하려는 시도"라고 니시무라 교수. 일이 대량으로 날아든 공장이, 일이 없는 다른 공장에 일을 돌리면, 서로가 이득을 본다고 하는 구조다.

이 대처는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다. 2019년 10 월에는 "제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문장을 발표. 거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의향을 밝혔다.

신형 코로나는 이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공장의 생산이 스톱해 버려, 그 영향은 일본의 자동차나 어패럴 업계등을 직격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중국 등에 생산 의존하고 있는 업계에 대해 국내 회귀와 동남아로의 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디까지의 기업이 응할지는 불명하지만, 일본으로부터의 주문을 받고 있던 중국의 공장이 이전하거나 일이 없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니시무라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이번 신형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제조업에서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분단이 일어나 생산 정지에 빠졌다. 코로나 후에는, 세계 레벨에서의 제조 거점의 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중국내에 있어서의 공장의 가동율이 내려갈 것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 국내에서는 "신형 인프라(※)"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의 수요증가에 의해서도 제조의 쉼어가 촉진될 가능성도 있다.

※신형인프라...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인프라. 5G 기지국이나 반도체관련, AI 나 블록체인등 폭 넓다.

생산 설비나 공장뿐만이 아니라 "인재의 쉼어"도 진행될 것 같다.

신형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서도 한때 음식점과 호텔, 영화관 등에서 일감이 사라졌다. 이러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IT 기업.알리바바 그룹이 제창한 것이 "종업원 쉼어"다.

남은 종업원을 기간 한정으로 알리바바가 인수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문이 증가한 푸드 딜리버리등의 일에 맡긴다.

일감이 없어진 쪽에서 보면, 주지 못하게 된 종업원의 급료를 알리바바가 대신 내 준다. 알리바바에서 보면 일감이 급증한 곳에 갑자기 새로운 인파가 생기고, 게다가 신형 코로나만 진정돼 일이 줄어들면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준다. 바로 윈윈이다.

이 시도는 다른 기업에도 퍼져,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감염 확대중으로 대략 400 만명이 "종업원 쉼어"를 활용했다고 한다.

니시무라 교수는 이 "인재의 쉼어"에 대해서도 "향후 종업원도 포함한 여러가지 쉼어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코로나 후도 계속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형 코로나는 그 동안 호조를 이어오던 비즈니스마져 삼켜버리고, 변화에 못 쫓아오는 것을 도태시키려

하고 있다. "웨어 에코"의 앞에는, 위생 관념이 향후도 벽으로서 가로막는다.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와는 상관없는 사업자간 점유율에 중점을 두고 진화해 나갈지도 모른다.

## 5.아베정권 코로나대책 갈수록 "세계의 상식"에서 멀어지고 있다.

(현대비즈니스, 2020.4.27)



사진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세계 일각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억제에 성공하기 시작한 곳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해 아베 정권의 코로나 대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와 비교하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그럼, 일본의 어디가 문제이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공중위생의 전문가로, 현재는 킹스칼리지·런던에서 교수를 맡고 있는 시부야 켄지씨는, "일본에서는 보다 발본적인 코로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WHO 사무국장의 상급 고문도 맡는 시부야씨가, 세계의 코로나 대책의 최전선으로부터 일본의 "지금"과"지금"에 대해 긴급 제언한다.

### '검사'와 '격리'의 기본이 무시되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 늦었다. 그리고 거기에 아무래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곧바로 엄격한 lock-다운을 해 감염 연쇄를 억제하고, WHO 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검사"와"격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사는 영국이 초동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커진 데 따른 교훈이다.

또 스테이 홈(집에 있자)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도쿄 올림픽을 1 년 후에 개최하기로 결정한

이상 일본이 국제적으로도 주도권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다.



사진 2) 출처: 현대비즈니스

나는 WHO 사무국장 상급고문이긴 하지만 WHO 직원도 아니고 WHO 편을 들 생각도 없다. WHO 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 그러나, WHO 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염 대책의 기본중의 기본을 나타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의 현상을 확실히 근거로 하여, 향후의 일에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한다.



사진 3) 출처: 현대비즈니스

나는 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까지는 후생 노동성의 클러스터 대책반의 진력으로 겨우 지난 몇 개월을 버티어 왔지만, 국면이 바뀌었다.

### 과감한 PCR 검사 확충을!

이미 감염자는 일본이 보여주는 숫자보다 더 많이 퍼져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모두 아시겠지만,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되어 있어도 증상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러한 탐지하지 못한 감염자가 지금 감염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감염이 확산되고 발병하는 환자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 붕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클러스터만 잡으려 가는 단계는 끝나고, 누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를 감지하기 위해 검사를 늘려가는 단계에 들어 있다.

그 체제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심이 되는 정책은 의료기관 밖에 검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통풍이 잘 되는 큰 텐트 같은 것도 괜찮고, 한국처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것과 원격 진료의 조합으로 의료 기관의 원내 감염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감염자를 색출해서 바로 '격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모두 입원시켰기 때문에 병원 침대가 꽉 찼다. 검사를 늘릴 때 중요한 것은 경증자가 자택이나 호텔 등의 대체 시설에서 요양해 주시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다. 그로 인해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에 대한 병원에서의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의사회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초진부터 전화-온라인 진료가 시작되고 있고, 지자체 레벨로 검사의 확충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과감한 검사 확충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한편, "집에 있자"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다 철저한 휴업을 위한 보상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일본에서 이야기되듯이 "외출 금지"의 법적 요건이 일본에 없는 것이 활발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실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먼저 팝이나 레스토랑 등의 점포를 보상부로 폐쇄한 후, 록다운을 선언했다. 팝이나 레스토랑을 닫음으로써 사회적 격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한층 더 "집에 있자"를 철저히 시킨 것이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국민에게 위기의식이 싹트고, 거기에 록다운으로 좁혀나간 것은, 강력한 일관된 메시지가 되었다.

### 3월 휴교 조치는 별 효과가 없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숙을 부탁하거나 비상사태 선포를 한 후에 어느 가게는 열어도 좋고 어느 가게는 안 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국민이 집에 있으면, 단번에 가게는 닫아버리거나 교통도 제한하지 않으면 명확한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 또 가게도 정부가 매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클리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어떤 순서로 펼쳐 나갈까. 전략적인 견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의 3월 시점에서의 휴교는 그다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금 일본 정부의 대책을 보고 있어도 여전히 뒤죽박죽이고 속도가 느려 정부에 장기적인 전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요인은, 국가 비상 사태에도 불구하고 평시의 페이스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정치와 과학이 독립하지 못한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전문가 회의의 위상이 분명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확한

정치결단을 위해서는 올바른 데이터와 과학적 지견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 또한 그것을 어느 우선순위로 실행해 나갈지 전략을 세우는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 4) 출처: 현대비즈니스

### 과학적 데이터를 신용하는 것

중국 우한의 예를 봐도 2~3 개월 만에 감염폭발을 종식시키고 있다. 락다운과 철저한 "검사와 격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이 우한이나 중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WHO 와 중국 정부가 조사한 "WHO-중국 합동 미션 보고서"가 나온 것은, 2 월 하순의 일이었다. 그 조사에는 일본의 감염증 연구소의 전문가도 참가했다.

거기에는 아웃브레이크가 있는 국가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서 '적극적이고 철저한 증례 발견, 즉각적인 검사와 격리, 면밀한 접촉자 추적 및 농밀 접촉자의 엄격한 격리를 우선한다'고 나와 있다. 즉, "검사와 격리"의 철저가 가장 중요하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 대규모의 조사에 의한 데이터는 이 보고서 밖에 없다. 실로 누계 7 만 5000 건의 증례를 기초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실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중국 편향"이라든지 "숫자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이유로, 데이터를 의문시하는 논조도 있다.

그러나 잘못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우한은 물론, 한국, 대만이나 독일의 예와 같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진 5) 출처: 현대비즈니스

### 도쿄 올림픽과 글로벌 헬스 리더

지금 희생양과 같이 WHO 는 잇따른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협력해 이 감염 대책에 임해야 할 때이다. 물론 WHO 도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WHO 의 이니셔티브를 받는 것 없이는 그 전망은 서지 않는다.

실은 2014 년에 일어난 에볼라 출혈열의 아프리카에서의 대유행 때도 WHO 의 초동이 늦었다는 것이 비판을 받았다. 거기서, 당시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 노동 대신의 진력으로 일본을 포함한, 7 개국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씨의 재단,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등이 자금을 조달하고, G7 이세시마 서밋 후에 CEPI(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감염증 유행 대책 이노베이션 연합)라고 하는 팬데믹·백신 개발의 기금을 만들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헬스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CEPI 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일본은 세계로부터 "글로벌 헬스의 리더"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 년 후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백신 개발은 WHO 도, 그리고 현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는 빌 게이츠도 빨라야 18 개월로 전망하고 있다.

### 한시라도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신형 코로나와의 싸움은 엄격한 대책을 세워 선진국에서 우한과 같은 성과를 봐야도, 아직 신흥국으로 확산되어 간다.

선진국과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직도 오랜 기간 대책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사람을 모으는 올림픽을 열려면, 세계 규모로 감염이 억제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 때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일본은 동기도 선명하고 글로벌 헬스 리더로서 국제적으로도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게된다.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감염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다.

## 6.'위기하에서는 도저히 못 말기겠다...' 아베 신조 퇴임 카운트다운 시작

(President Online, 2020.4.29)



사진 1) 출처: iStock.com

■양성률의 높이를 근거로 하면 "연장"이 농후하다는 견해는 강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긴급사태 선포 이후 일본은 향후 향방을 크게 좌우할 대형 연휴에 돌입한다. 3월 20일에 초중고교등의 일제 휴교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결정해 3연휴의 흐트러짐을 부른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수상은 대형 연휴중의 "온라인 귀성"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이 머리를 싸매는 것은 5월 6일까지로 설정한 선언 기간의 연장 시비다. 증가하는 감염자수나 양성율의 높이를 근거로 하면, "연장"이 농후하다는 견해는 강하지만, 원래 선언 발령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새로운 경제에의 타격을 염려한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인가, 경제와의 균형을 잡을 것인가--

궁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양자택일에 대한 줄다리기는 격렬해지고 있다. "여름까지 종식하지 못하면 일본 사회는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도 새는 가운데, 수상은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가. 그 시점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극히 어려운 상황". 정부가 4월 23일에 발표한 4월의 월례 경제 보고에는, 리먼·쇼크로 곤경에 처한 2009년 5월 이래, 약 11년만에 "악화"라고 하는 문구가 사용되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과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장래에 대한 초조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 ■언제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문닫고, 재택근무를 계속해야 하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로 모호한 것은 출구를 어디로 설정하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 기회를 최소 70%, 최대한 80% 줄일 수 있다면 2 주 후에는 감염자의 증가를 피크아웃시켜 감소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반복해 왔지만 그 출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감염자수나 양성률, 사망자수등이 어느 정도 안정하면 좋은 것인지, 그 "기준"이 설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숙이나 휴업을 단지 참는 "출구 없는 전략"을 돌진하고 있다.

언제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계속해야 하는가. 학교는 언제부터 재개되는가. 아베 총리는 4 월 말부터 연휴 기간에 선언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면 감염 재확대의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연장이라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그 기준 설정과 함께 대국민 설명이 요구된다. 전 오사카부 지사 하시모토 도루 씨는 4 월 21 일 방송의 TBS 계 "아사짱!"에서, 경제활동 재개의 판단에 관해 "정치가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 판단이 된다. 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정치가다"라고 지적했지만, 이 "각오"를 수상이 가질 수 있을지 어떨지가 일본 사회의 갈림길이 된다.

### ■국민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의도에 사로잡힌 판단...

아베 정권의 초동 지연과 방향하는 행태에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마스크 각사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위기하의 아베 정권의 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회답은 마이니치 신문(4 월 18, 19 일 실시)에서 53%에 달해,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서 수상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아사히 신문사( 동)에서 57%에 이르렀다. 내각 지지율도 하락세다.

한 번은 각의 결정까지 한 감수 세대예의 "30 만엔 급부"를 급선회, 1 인당 "10 만엔의 일률 급부"로 변경하는 등, 전대미문의 우왕좌왕 모습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베 정권과 가까운 정치평론가 다자키 시로 씨는 4 월 17 일 방송된 TBS 계열 히로오비! 에서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연립 이탈을 알리면서 아베 총리에게 10 만 엔을 요구했다. 공명당은 이전에 각의에서 서명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해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것이 통과돼 버렸다고 해설해 보였지만, 4 월 18 일자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지탄했다. "정치 지도자가, 특히 국민의 생명이나 생활이 걸린 장면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의도에 사로 잡힌 판단을 내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 ■'하시모토 총리' 트렌드 진입. 아베 퇴진도 현실화

국민에게는 "한마음"이 되어 감염 확산 방지에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내에서는 아베 수상과 이마이 나오야 수상 보좌관 등 측근 그룹에 의한 "A 팀"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즈미 히로토 수상 보좌관등에 의한 "B 팀"의 확집이 불안정한 정부 대응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긴급사태하에서 각국의 리더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한마음"이 될 수 없는 지금의 정권·여당에 물러서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항로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트위터에서는 4 월 22 일에 "#하시모토 총리"가 트렌드에 들어갔지만, 그 찬부는 차치하고, 이것에 뇌과학자 모테기 켄이치로씨는 "나름의 반응이 트위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겠지요....."라고 반응했다. "1 세대에 천마스크 2 매 배포"의 예를 들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10 만엔 지급"에 대해서도 "요망하는 분, 손을 드는 분에게 나눠 준다"(아소 다로 재무상)라고 국민 감정을 거슬리는 듯 한 정권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자민당을 담당하는 전국지 정치부 기자는 "아베 수상이나 아소 재무상등 "세습 정치"는 서민의 고생은 모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국민은 가지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한다면 다음에는 언제까지 종식시킬 것이냐는 출구도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실패하면 아베 퇴진이 현실성을 띠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 "위기 아래선 아베 총리 못 맡긴다"며 책임 묻는 목소리...

정부는 6월까지 1 개월 정도의 선언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휴업 요청에 응한 사업주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보상"이 없는 가운데, 활동 축소를 피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데미지는 현격히 늘어난다. 입학식이나 개학식조차 못하고 공부 지연을 걱정하는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의 불안과 불만도 한계에 가까워진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떻게--."그 해답을 여름까지 찾아내지 못하면, "위기하에서는 아베 수상에 맡길 수 없다"라고 책임을 묻는 소리가 분출할 것이다"(자민당 각료 경험자)라는 소리도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제의 적은 오늘의 친구. 권력투쟁이 반복되는 정치판이라지만 가장 빠르다면 6 월 총리 퇴진설이 돌고 있다. (민방 기자) 사상 최장 재상으로 1 강 시대를 구가했지만 비상사태 대응으로 신뢰를 잃은 아베 총리는 위기를 수습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는가. 총리 본인의 의욕과는 별개로 이미 포스트 아베로 한 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포스트 아베는 '풍파를 헤쳐나온 사람'인가

그 인물은 스가 관방장관이다. 지금까지 "포스트 아베"로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나 키시다 후미오 정조회장등의 이름이 떠올랐지만, "중의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하면, 톱 교대에는 일정한 계속성이 필요하다"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는, 수상이나 이마이 수상 보좌관들 "A 팀"과의 균열에 의해 지령 계통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고 하지만, 스가씨는 "그런 것은 헤엄치게 놔 두면 된다"라고 신경쓰고 있지 않다"(관저 관계자)라고 여겨진다. 전 부처의 정보가 모이는 관방장관을 오래 맡아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이나 공명당과도 연락을 긴밀히 하는 "단독남"에 기대하는 소리는 서서히 부풀어 오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로 선수를 빼앗긴 정부 대응은 "스가 제외"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평론이 많은 것도 대망론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가스미가세키안에는 "스가씨가 등판하면 관료를 잘 다루어, 스피드감이 있는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정부 관계자)이라는 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베 총리와의 2 인 3 각으로 정권을 탈환해 '파수꾼'으로서 수많은 위기관리에 대응해 온 스가씨가 코로나 상황에서 안고 있는 위기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아베 수상이나 아소 재무상 등 "정권 중추의 위기의식은 아직 부족하다"(민방 기자)고 여겨져 이러한 소리도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 아소 전 간사장은 2012 년 자민당 총재선거 때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를 물리치고 스스로 출마한 이시하라 노부테루 당시 간사장을 헤세이의 아케치 미쓰히데(일역사 속 반역자)라고 비판했지만 갈수록 커지는 스가 대망론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할까.

### 7.신문 TV “정부의 꼭두각시격”인 한심한 실태 (동양경제온라인, 2020.4.27)



사진 1) 출처: 로이터, "정부의 정식 발표가 없으면 보도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계속 되면, 편한 정보만을 흘릴 수도 있다(사진은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하는 아베 수상을 비추는 가두 스크린. 도쿄도내에서 4월 7일 촬영. Naoki Ogura)

"정부의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지금이 어떠한 상태인지, 판단할 수 없다" "감염이 확인된 사업자 자신이 사이트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행정 발표하고 있지 않으면 게재하지 않는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언론사 근무자들로부터 이런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일본 언론문화정보노조회의(MI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실태지만 마치 제 2차 세계대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레이와(현재 일본 연호)의 대본영 발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태가 아닌가. 연구자들의 따가운 시각도 섞여 가며 대중매체가 거의 보도하지 않은 MIC 설문조사 내용을 전한다.

#### ■ "위부터 아래까지 알아서 기고, 자율규제. 무사안일"

MIC 는 신문노련과 민방노련 등을 묶은 조직으로 언론계 노동 관련단체로 일본 최대 규모다. 이번에는 2 월 하순부터 "보도의 위기 양케이트"를 실시해, 214 명으로부터 유효 회답을 얻었다. 이 가운데 인터넷 매체나 프리랜서 등은 15 명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대부분은 신문이나 방송 현장에서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당신이 현재 보도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에 대해 알려 달라.

그 물음에 대한 자유 기술에서의 회답에서는, 다양한 "위기"가 보인다.

- 국회논전을 방송하지 않거나 해도 짧다. 관저 기자가 정권에 불편한 뉴스를 죽이거나 프로그램에 클레임을 건다. 이것은 일사다반사. 관저 기자가 정권의 인너가 되어 있다.
- 뉴스 소스가 관저나 정권일 것. 그 결과 프로그램 내용이 관저나 친정권적인 면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을 비판하고 바로잡아 나갈 자세가 전혀 없다. 라고 할까, 설사 있다고 해도 간부가 쥐고 있으므로 방송되지 않는다

- 위부터 아래까지, 알아서 기고, 자주규제. 무사안일주의. 샐러리맨뿐이고, 저널리스트는 없다
- 과잉의 기회주의, 눈치보기라고 현장의 제작자나 중간관리직도 알고 있으면서, 까다로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무사안일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상 관저 보도실은 4 월상순, 관저 기자 클럽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책으로서 수상 회견에 출석하는 기자를 1 사 1 명으로 한정하도록 요청했다. 외신이나 프리랜서 기자들은 10 석밖에 배정받지 못해 희망자가 많으면 추첨을 하게 된다. MIC 에 따르면 보도실의 요청 이전 회견장에는 130 개 정도의 좌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29 석으로 좁혀져 있다. 평일 하루 두 차례 열리는 관방장관 회견 역시 기자 수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 코로나와의 관련으로 회견이 상당히 제한되어, 들어갈 수 조차 없게 된 것도 있다. 곤란한 질문을 받고 가능한 한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도 느낀다.

코로나사태에서의 관저 취재에 대해서, MIC 의장 미나미 아키라씨(신문 노련 위원장, 아사히 신문 노조 출신)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정부에 권한을 집중시켜, 그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할 때에, 체크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버리고 있다.(관저 회견에서의 기자수의 추출에는) 몇 회사인가 반대한 것 같지만, 관저측의 요청이 강하고, "인원수 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에 안 되었다. 위기에 편승한 취재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지금 가장 큰 과제이다”.

#### ■ "의료 붕괴라고 쓰지 말라"고 해서

코로나 문제에 관한 회답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기술도 나란히 있다.

- 기자 스터디 모임에서 정부측으로부터 "의료 붕괴라고 쓰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의료현장에서 비명이 계속 들려오는 바람에 보도가 멈출 정도는 아니지만 감염 방지를 이유로 대면 취재도 어려워지고 있어 당국의 발신에 보도가 내보내 질 우려가 있다.

· 의료붕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정부나 자치단체의 장이 "아슬아슬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그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흘러 버리고 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보다 정치인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데 위기감을 갖고 있다. 위의 보증이 없으면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할 수 없다.

- 감염이 확인된 사업자 자신이 벽보나 사이트에서 공표하고 있는데, 행정이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신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에 관한 취재를 계속하고 있는 프리랜서 소에다 다카시(전 아사히신문 기자) 기자는 설문지 답변을 보고 힘겹게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사고에서도 그랬는데 행정수장이 높은 방사선량 정보를 내놓으면 패닉을 부추길 테니 쓰지 말라고 말해 기자클럽 사람들도 따라붙는 일이 있었다. 위기 시의 정보 발신에는 제대로 된 논문도 있고, 제대로 정보를 내지 않는 편이 오히려 패닉을 일으킨다. 후쿠시마 사고 9 년이 지났는데 정말 배우지 않았다, 라고”.

#### ■ "쓰지마" 하면 그 자체가 대뉴스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치면 수제 마스크 500 장 기부 같은 기사라든지, 중학생이 용돈으로 마스크 꿰매어 기부한 이야기라든지, 좋은 사연도 올려야 한다는 억지감도 많다. 그 한편, 행정측·정부측이 "의료 붕괴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의료 붕괴"라고 쓰지 않는다면, 저널리즘으로서 일의 포기이다. 자신들의 취재를 통해 "이러한 상태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면 되지,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할 때까지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다. 원래 "의료 붕괴라고 쓰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 자체가 큰 뉴스이다. (MIC 의) 설문 응답에 쓸 때가 아니다, 라고”.

정보 미디어법을 잘 아는 타지마 야스히코·전 조찌대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기자 회견의 멤버가 셀렉트 된다든가 (회견의) 시간의 제약이 있다든가, 회견 그 자체가 매우 일면적인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래 이상으로 독자적인 취재나 보도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게 원래 언론사의 역할이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지면 언론이 얼마나 정부의 정보에 의지해 전달하고 있는냐가 노골적으로 된다. 미디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의 "대본영 발표"와 같은 역할을 해 버리고 있다. 그 부분을 진짜로 바꿔가는 걸 해야 한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보도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시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지금도) 아주 엄격한 자기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알려졌듯이 일본의 신문이나 라디오는 제 2 차 세계대전 때 군부(=대본영) 발표를 그대로 흘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호전적인 지면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한 역사를 갖고 있다. 타지마씨의 지적은, 확실히 지금이 대본영 발표와 같지 않은가, 라고 하는 점에 주안이 있다.

#### ■ 기자클럽의 권력감시가 기능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MIC 의장의 미나미씨 "기자 클럽을 거점으로 한 취재 스타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기자클럽을 거점으로 하면서 기자 제도 아래 취재 대상에 달라붙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스타일 자체가 권력을 가장 많이 감시해야 할 때 기능하지 않는 것이 노출됐다. 이 시스템은 계속 문제지만 드디어 미디어 측도 이래서야 어렵다고 인식하게 된 것 같다.

"미디어 측도 변해야 한다. (최근 몇년의) 공문서의 문제도 포함해, 매우 불투명한, 정보개시에 소극적인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설명시켜 갈 것인가. 그것도 기자클럽에 한정하지 말고 사회 전체에 투명성을 갖고 설명시켜 나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이곳을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언론 보도에 종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아래와 같이 모두 소개한다. "언론보도가 열악하다"는 오래된 말이지만 설문조사 답변을 다 읽다 보면 그 실체에 새삼 경악할지 모른다.

일본언론문화정보노조회의 "보도관계자 대상 '보도의 위기' 설문조사 결과(개요)에 대하여" (PDF 파일, 2020년 4월 21일)

## 8.코로나 대책으로 중앙은행의 "국채 무제한 매입"을 맞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 (DIAMOND, 2020.4.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으로 재정지출 급증. 국채 발행액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를 사들여 금리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 계속되는 기간 중에는, 이로 인해 인플레이가 생기는 일은 없다. 감염이 종식한 코로나 후에도, V 자 회복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단지 통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형 도산의 리스크를 중앙은행이 맡는 것(리스크의 국유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 국채 발행 급증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구매로 장기금리는 저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경제 대책은, 국민 일률 10 만엔의 생활 급부가 포함되어, 117 조엔 규모의 것이 되었다.

2020 년도 추경예산에서 국채 발행 증가는 약 26 조엔. 당초 예산과 합하면 약 58 조 엔이다. 올해 말 잔액은 1033 조 엔이 된다.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



사진 1) 출처: PIXTA

국채 증발을 방지하면 금리가 상승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국채의 이자 지급도 증대한다.

거기서 장기 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구입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융시장 동요를 막기 위해 국채 등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이 결과, 총자산이, 3 월의 한 달 사이에 1 조 6500 억 달러( 약 176 조엔) 증가해 잔고는 일본은행이나 유럽 중앙 은행(ECB)을 앞질렀다.

이에 따라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2%에 가까웠던 미국 장기금리는 0.6%로 낮아졌다.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밀둔다. 이는 금융 억압으로 불리는 상태다.

일본에서도, 일본은행이 27 일의 금융정책 결정 회합에서, 현재 연 80 조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채의 구입액의 상한을 철폐해, 필요한 양을 제한없이 살 수 있도록 했다(바로 최근까지의 실구입액은 80 조엔을 꽤 밀돌고 있었다).

일본에서도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신발행 10 년물 국채 이율은, 마이너스 0.025%로 추이하고 있다.

#### ■ 다음 과제는 일본은행 인수 단행할까?

다음 과제는, 일본은행 인수에 의한 국채 발행을 단행할지 여부다.

다만, 이차원 금융완화로, 은행이 구입한 국채를 곧바로 일본은행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어 이것은 사실상의 일본은행 인수다. 그러니까, 일본은행 인수를 형식적으로 인정해도, 실태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일본은행이 국채 구입을 늘리면, 자금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재정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MMT(현대화폐이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MMT는 재정적자를 상시화한다는 정책이지만 지금은 임시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이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은, 통상의 경제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라 이런 운영이 허용된다.

그런데 지금 현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불 준비로서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면 돈이 늘어난다.

미국에서도 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일본게이지아이신문, 2020년 4월 24일).

2020년 3월말에 약 14조달러(약 1500조엔)로, 19년 12월말부터 8989억 달러(약 100조엔미만) 증가했다. 3월에만 7615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차입해 이를 종자돈으로 은행에 맡겼기 때문이다.

#### ■코로나 대책으로 중앙은행의 '국채 무제한 매입'이 옳다는 발상의 전환

덧붙여 일본은행이 국채를 구입했을 경우, 나라는 원리 지불을 하는 국채비를 지출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일본은행 납부금이 되어 국고에 환류됨으로, 나라와 일본은행을 일체로서 보면, 총금액에서 지출이 되지 않는다.

#### ■프라이머리 밸런스 얘기가 아닌 경제 전체의 균형으로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봐 온 것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계속 되는 국면의 금융재정의 기본적인 형태다.

코로나기간 및 바이러스 감염이 종식된 코로나 후의 재정금융정책은 경제 전체의 거시적 균형과의 관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평시의 경직적 사고법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중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밝혀 왔다.

거기서 지표로 삼은 것은, "프라이머리 밸런스(기초적 재정 수지)"다. 이는 수입에서 국채 수입을 제외한 금액과 지출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금액의 균형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이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채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이는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국채 발행액과 국채비가 문제다.

코로나기간의 급격한 재정 적자 확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프라이머리 밸런스에는 포함되지 않는, 국채 발행액과 국채비이다.

하지만 아소 재무상은 코로나기간에도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평시의 재정건전화에 집착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기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 ■코로나 후 국채 뒷수습에서 인플레이션이 될까?

코로나 대처를 위해서 재정 지출이 증대하므로, 국채 적자가 누증한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것도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자.

본래라면, 코로나 후에 증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국채 잔고 1033조엔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의 세수입 전망의 약 16배라고 하는 방대한 액수다. 이를 증세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경제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증세는, 매우 무리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국채 구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특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가 아닌가이다.

이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수요와 공급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

전후의 일본 경제에서는, 공급력이 파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는 실업으로 인해 소비수요의 기반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 ■ 실물자산 유리할까? 수요 급감으로 인플레이션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될지 어떨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떠한 자산을 가져야 할지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행도 FRB도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한다. 그리고 돈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주식이나 돈이 유리한 자산이 될지는 물가상승률에 달려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실물자산이 유리해지지만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걸리지 않고 실물자산의 유리성은 실현되지 않는 것 아닐까.

무엇보다, 이것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V자 회복을 가정하면 사태는 달라진다.

미 의회 예산국(CBO)의 예측에 의하면, 4~6 월기의 미 GDP는 전기대비 연율 40%감, 실업률은 14%, 재정 적자는 연 3.7조 달러가 되지만, 7~9 월기는 V자 회복해, 21년의 GDP는 3%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V자 회복 전망은 또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은 그리 빠르지 않다.

따라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한동안은 회복되지 않거나 회복되더라도 조금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닐까.

#### ■ 기업파탄 리스크 금융위기로 발전하는 불안감 가지지 않아

코로나 기간 중 우려되는 것은 기업의 도산이다. 특히 문제는 석유 관련 기업들이다.

4월 20일 NY 유 선물 5월 인도분(WTI) 종가는 배럴당 37.63 달러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 가격이 됐다.

이후 유가는 플러스가 됐지만 다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생산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산유국에서는 생산을 계속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급여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은 산유국에서 7090 달러, 셰일오일로는 40 달러 정도로 선물가격은 이미 밀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도산이 발생하고 그것이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괜찮을까?

#### ■ ETF나 정크채 구입 "리스크 국유화"는 피해야

이러한 리스크의 표면화를, 중앙은행이 억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FRB는 리스크가 높은 "정크채"도 매입하기로 했다.

일본은행도 ETF 매입을 늘려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는 리스크의 국유화라는 것으로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는 것과는 다른 이질적 행동이다.

이 때문에, 주식시세는 하한가의 견고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다투 평균은, 2월에 붙인 과거 최고치로부터 3월연초이후 하한가까지의 하락폭의 반값반환을, 4월 17일에 달성했다. 닷케이 평균도 비슷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리스크 국유화를 해도 되는지는 크게 의문이다.

대형 도산이 잇따르면 중앙은행의 자산은 열화된다. 최악의 경우 자본잠식에 빠지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통화 가치가 대폭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태에 빠지는 것은, 부디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9.자랑할 목적으로 타워맨션을 산 중산층. 코로나로 진퇴양난의 지옥상태

(President Online, 2020.4.27)



사진 1) 출처: iStock.com

### ■ 타워맨션을 사는 중산층(파워커플)들

타워맨션은 지진국인 일본에 원래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도심과 해안부에서의 규제 완화(용적률 완화)와 내진 기술의 진보로 속속 타워맨션이 줄이어 들어서면서 2000년대 이후 이른바 타워맨션 붐이 도래했다. 현재, 일본 전국에 타워맨션 1300동 이상, 도쿄도만으로 그 3할에 해당하는 400동이 존재한다.

진짜 부유층은 타워맨을 사지 않는다. 이 나라의 전통적 부유층은 원래 도심지의 땅값이 비싼 주택지에 전통적으로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층 미만의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맨션에서의 구분소유라는 소유권 형태가 대규모리뉴얼이나 재건축 시에 자신만의 의사로는 어쩔 수 없는 애물단지임을 알기 때문이다.

타워맨션 붐이 일었던 제로년대 초, 타워맨션의 주력 구매층은 뉴 리치로 불리는 후발 부유층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주식이나 창업으로 재산을 이룬 신흥의 부유층이다. 그러나 타워맨션이 이렇게까지 보편화되면 아파트 개발자는 그 구매 타깃을 신흥 부유층에서 그 이하의 중산층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고, 현재 타워맨션의 주요 구매층은 파워 커플로 불리는 중산층이 많고 있다.

### ■ 파워커플의 생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파워 커플이란 무엇일까. "남편과 아내의 수입을 합산 한 세대 연수입이 1000만엔 이상"(미츠비시 종합연구소), "부부 모두 연수입 700만엔이상"(닛세이 기초 연구소)이라고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부부의 합산 연수입이 1000만엔 가가이의 구매력 왕성한 세대라고 생각해도 좋다.

1992년 국가는 "연봉의 5배로 주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땅값은 치솟아 주택 취득배율(주택 취득금액이 연봉의 몇 배가 될까)은 도심에서 10배 이상으로 뛰었다. 연수입이

500 만이라도, 장기 론으로 5000 만엔의 물건을 산 시절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취득 배율이 5 를 넘으면, 가계는 대출의 변제에 압박되어 "적정한"소비 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

대출변제에 급급해, 그 이외의 지출을 엄밀하게 억제하는 궁핍 생활을 실시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주택 취득은 어려웠다. 그래서 국가는 당시, 무리 없는 취득 배율 5 를 슬로건으로 한 것이다. 거품붕괴 이후 90 년대 중반을 거쳐 제로연대에 이르기까지 땅값 하락으로 취득배율은 5 에 턱걸이했다(다시 우량한 중고주택이 시장에 나온 것도 요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디플레이션에 따른 장기불황으로 가구연봉이 포화상태에서 감소세가 되자 총소득 감소로 취득배율은 서서히 오르고 있다.

#### ■파워 커플의 타워맨션구입, 자살과 다름없어

그런 가운데 맨션 업계는, 남편의 연수입 만이 아니고 아내의 연수입도 합산 한 세대 소득을 기초로, 세대 소득의 5 배 정도로 간신히 손이 닿는 범위의 타워맨션의 매출 전략으로서 파워 커플을 정조준했다. 실제로 은행의 주택용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연수입의 78 배 정도까지 용자를 받는 예가 많다. 그렇게 되면, 이미 타워맨션의 주력이 된 파워 커플의 세대 연수입이 1000 만엔이라고 하면, 대략 7000 만~8000 만엔의 물건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어 구입의 범위에 들어간다. 7000 만엔이라면 도내에서도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지면적 20 평 정도의 신축 단독주택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중고 물건이라면 보다 싼 가격이 되지만, 어차피 장기 용자를 해서 같은 맨션을 살 거라면 타워맨션 붐은 계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도쿄도내의 신축 타워맨션 시세는 대략 5000 만~ 1 억엔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취득배율이 5 내지 7 을 넘는 주택을 장기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행위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주택용자 변제비 이외의 모든 지출은 내핍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파워 커플의 정의는 앞서 설명한 세대 연수입만이 아니다. 왕성한 구매 의욕도 정의에 들어온다. 그래서 실내의 가구·가전에도 최신의 것을 가지려하고, 아이의 교육에도 여념이 없다.

#### ■파워 커플의 비대한 선민의식

이렇게 되면 파워커플의 타워맨션 구입은 상당히 무리하게 무리하게 이뤄지는 파멸적 주택 취득이지만 SNS 전성기인 요즘 파워커플을 주로 한 타워맨션 거주자는 힘든 경제사정과 달리 홈파티나 집회식의 모습을 보란 듯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SNS 에 올린다. 이러한 보란 듯이 올리는 사진이 SNS 로부터 발신되는 예를 본 적이 있는 독자도 많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틴 베블런은 이런 소비 행태를 전시식 소비라고 불렀다. 자신들은 일등 다른 대중과는 다른 선택된 유한 계급이며, 타워맨션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밑바닥의 생활을 비예하면서, 생각지 못한 친구나 지인을 불러 야경을 배경으로 홈 파티를 즐기고 있다--. 사실 이런 자의식, 비대해진 선민의식이 무리해서까지 타워맨션을 구입하게 만든 동기의 가장 큰 이유다.

미야베 미유키의 걸작 소설 "이유"(1998 년)는, 이러한 사람들의 자의식을 자극하는 타워맨션이 모종의 스테이티스로서 선망을 모으는 중, 센쥬지구의 타워맨션을, 무리를 해서 부동산 경매로 낙찰한 변두리의 주민이, 트러블에 말려 파멸하는 서스펜스이다. 당시는 타워맨션 붐의 효시였으므로, 이 소설의 구성은 확실히 시대의 선구가 되는 강렬한 시사점이 풍부한 것이 되었다.

#### ■○○과 연기는 높은 곳이 좋아.

그러나 이제 타워맨션 구매자의 주력이 된 파워 커플이 정말 유한有關係급인가 하면 전혀 다르다. 부부의 합산 연수입이 1000 만엔이라고 하는 정도의 소득은, 다른 선진국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중산 계급, 경우에 따라서는 중하층 정도이다. 만성 디플레이션 하에서 가난해져 가는 일본에 있어서 중산하위의 세대가 유한계급을 점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회의 병소 중 하나이지만, 맨션 개발자는 현지 설명회에서 그런 마이너스 요소를 일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백전연마의 영업맨에게 "저금리 시대의 지금이라면 동경하는 타워맨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실려, 희희낙낙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은행이나 공고에 평균수명에 절반미만에 가까운 초장기 대출을 신청해 간다.

인간은 자명한 것을 대대적으로 어필하지 않는다. 일본 유한계급은 세무서의 눈치를 보며 허울 좋은 소비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스로가 밑의 삶을 고층으로부터 비예하는 일로 기뻐하지 않는다. 압도적 강자는 자신이 강자임을 SNS 에서 특별히 내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강자이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무리를 거듭해 타워맨션을 산 파워 커플이, 보란 듯이 SNS 로 스스로의 타워맨션 생활을 선전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스스로의 마음의 빈곤과 표리 일체이며,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취약한 존재이다. ○○과 연기는 높은 곳이 좋다, 라는 적절히 잘 말한 것이다.

#### ■코로나 불황이 타워맨션 중산층 가계를 강타

하지만 취득 경쟁률이 5 나 7 을 넘어 무리하게 무리를 거듭해 타워맨션을 구입한 파워 커플의 눈물겨운 자의식 생활도 이번에 코로나화로 무너질 것이다. 최근 발표된 IMF 의 경제 예측은 충격적이었다. 2020 년 세계 경제는 -3% 정도로 급감속한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특히 유럽에서 -5%에서 10%범위로 떨어진다.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중국 경제는, 조금 플러스지만 1%대라고 하는 역사적 저수준으로 강하한다. 세계경제의 리더가 없게 되어, 일본의 경제성장 예측은 마이너스 5%가 넘는다. 바야흐로 08 년의 리먼·쇼크보다 거대한 공황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경제는 확실히 디플레이션이 고진다. 당연한 일이지만 디플레이션하에서 부채는 실질적으로 증대된다. 단순 계산으로 마이너스 2%인 디플레이션은 5000 만 엔의 부채를 5100 만 엔으로 팽창시킨다. 이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온다. 그러자 주택용자는 가뜩이나 빈약한 가계를 더욱 압박한다.

#### ■파워 커플 중 한쪽이 실직하면 파멸 소리는 더 가까워진다.

타워맨션 구입시, "여차시에는 구입한 맨션이 자산이 되므로 안심이다" 라는 등의 입버릇은 붕괴한다. 당연하지만, 타워맨션을 팔고 싶다고 생각해도 구매자가 생기지 않으면 현금화는 할 수 없다. 부동산의 현금화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지만, 공황하에서는 더욱 더 살 사람이 없게 된다. 파워 커플 중 한쪽이 실직하면 파멸 소리는 더 가까워진다. 그리고 구입시에 "여차하면 자산이 된다"는 등의 기대는 배신당해, 큰폭으로 할인한 형태로 방을 처분하는 소유자가 격증한다. 그렇게 해서 저점까지 내린 타워맨션을 절호의 호기로 파악해 호시탐탐 노려, 여유 자금으로 투자 목적등에서 구입하는 것은, 같은 파워 커플등이 아니고, 이 나라에 있어서의 진정한 부유층, 즉 도심부에 전통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가져, 디플레이션하에서 실질적으로 금융 자산이 비대하는 부유층이나 법인이다. 이는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된 약육강식의 섭리다. 결국 지주·토지 소유자가 절대적인 승자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머리 한켠으로 쫓아 잠깐의 "타워맨션에서 홈 파티"화상을 SNS 에 투고하고 그 느낌에 젖어 있는 거짓 유한 계급이, 이번 코로나화의 인적 피해보다 압도적으로 심각해질 경제 공황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 ■당기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지옥

만일 궁핍생활로 전환하여 모든 방위수단을 강구하여 공황을 견뎌내도 타워맨션은 그 구조상 고액의 대규모 수리비용이 든다. 공황 후, 취약한 경제기반과 탁상 변제 계획밖에 가질 수 없는 타워맨션 입주자가 다수 파탄하는 가운데, 구입시의 계획대로 관리조합이 수선비를 염출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실은 미지수다. 그러면, 1 호 당의 바닥 면적에 비례해 추가로 거출을 강요당해 대규모 수선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근대 건축기술의 정수를 모아 만들어진 타워맨션은 덩치가 너무 커서 수선하지 않으면 금세 열화되어 폐허화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도 털끝만큼도 없어 부동산은 '부(負) 동산'이 된다. 보유만 해도 관리비·수선비·고정자산세를 흘려버리는 "부동산負債"이다. 사실, 현재까지도 버블기에 건조된 리조트의

타워맨션은 이러한 참상이 되어버려, 한 방에 15 만~80 만엔이라는 거저나 다름없는 가격이라도 매입자가 붙지 않고 있다. 해체하려고 해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찬동을 얻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고, 물러서지도 지옥, 나아가지도 지옥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에 부자들은 신축 타워맨션에 손을 대지 않는다. 디벨로퍼는 전문 능력이며 구입 희망자는 지식이 없는 양이다. 처음부터 변두리의 검소한 중고 단독주택을 사고, 자의식에 빠지지 않는 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해도 시계 바늘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인간의 자의식만큼 값비싼 대가는 없다.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과학기술>****1. “중국 천안”: 코로나 19 기간에도 정상적인 운행 중, 114 개의 펄사 발견**

(2020.03.23)

“중국 천안” 천문대 운영 및 발전 센터에 따르면, 올해 1 월 1 일 부터 3 월 23 일까지 “중국 천안”이라고 불리는 500m 직경의 구면 전파 망원경은 1000 시간 가까이 관찰은 완성했으며, 올해 관측 목표의 3분의 1을 달성하며 114 개의 펄사를 발견하고 입증하였다.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에 인원이동을 줄이기위해 북경에 위치하는 “중국 천안” 운영 및 발전 센터의 대부분 연구원은 재택근무 중이며 소수는 귀주(贵州)관측 센터 현장의 연구원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심지어 2 달에 한 번씩 실만큼 열심히 출근하고 망원경의 정상적으로 운영됨과 과학자들의 여러 관측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확보하였다.

현재 “중국 천안”은 누적 관측시간과 과학생산에서는 중요한 시기 여서, 본 센터는 현재상황의 불리함을 극복해 망원경 관측과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서 펄스별 타임 어레이, 드리프트 스캔 다과학 표적 순천 등 5 개 중요하고 우선적인 프로그램의 과학관측이 잇따라 가동되고 있다.

**<금융>****1. 국가세무총국 새로운 '코로나 대비 세금 할인 정책 안내' 발표** (2020.03.10)

코로나 발생 이래 당 중앙과 국무원은 방역 및 업무 복귀 생산 재개 관한 세금 할인 정책을 세차례 출범했다. 세수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역 및 사회 경제의 발전을 도와 주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새롭게 '코로나 대비 세금 할인 정책 안내'(이하 '안내')를 발표해, 보호구제 지원, 물자공급 지원, 공익기부 장려, 조업재활 지원 등 4 개 항목의 17 개의 정책을 일일이 해독하며, 납세자, 납부자들이 새로 내놓은 세금 혜택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세무총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안내'는 2 월 발표한 것에 비하면, 내용이 더 전면적이고 더욱 섬세한 해독도 있어서 읽기 납세자들이 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첫째, 새로운 정책이 추가되었다. 두번째 발표때의 단계적 사회보험비 낮추기, 의료보험비 낮추기, 그리고 세번째 발표때 단계적으로 소규모 납세자의 증가세를 낮추자는 정책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둘째, 내용을 더 세분화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대중교통서비스, 생활서비스 및 주민 필수생활물자 택배수송서비스 수입 비과세' 항목에 대중교통수송서비스, 생활서비스, 택배수송서비스의 세목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주석을 추가했다. 셋째, 목록을 보충했다. '납세자의 방제 중점 보장 물자 반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아래 방제 중점 보장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보호구제 지원은 정부가 정한 예방조치 임시근로수당과 장려금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고 개인취득단위에서 발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의약방호용품 등은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지원물자 공급에 있어서는, 방역 물자 생산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전액 환급 및 공제; 납세자가 방역 물자의 운송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납세자의 대중 교통 운수 서비스, 생활 서비스 및 주민

생활 필수품 물자에 대해 증가세 면제; 방역 물자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능력을 늘려 설비를 구입하면 소득세 세전 일회성 공제를 허용하고, 위생건강 부서인 조직에 수입된 방역용 물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공익기부 장려에는 공익적 사회조직이나 현금 이상 인민정부와 부문등 국가기관 기부를 통한 방역 대응 현금과 물품에 대한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세전 전액 공제; 방역임무를 맡은 병원에 직접 물품을 기증해 기업소득세나 개인소득세 전액 공제를 허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면 부가가치세, 소비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면세수입물자 기부 확대.

업무 복귀 생산 재계에 있어서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2020 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최장 연한을 8 년으로 연장;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단계적 감면; 기업연금, 실업, 산재보험의 단계적 공제; 직장별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자영업자의 노후실업공상보험 단계적 감면; 근로자의 기본의료보험 단위 납부로 단계적 감액; 도시토지사용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자영업 공제를 지원한다.

세무 정책 관계자는 현재 방역 태세가 지속적으로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생활에 질서와 생산이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부는 계속적으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심화 학습하고 전염병 예방과 복구를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더 나아가 우대조치의 정착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비접촉식" 세금 집행에 힘을 더하여, 데이터 서비스에도 힘써야 하고 방역 직무에 더 힘을 보태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실용적인 정책으로, 더 좋은 효과로, 당 중앙 및 국무원의 결책을 곳곳에 실현되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한다.

## 2. 중국 은행 기관 전염병에 대항하여 신용 대출을 1 억 8 천만 위안 초과 지원 (2020.3.22)

저우량(周亮)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22 일 국무원 신문판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 은행기관들이 항전(抗戰)을 위한 여신지원을 1 조 8000 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2 월 은행업은 제조업 대출이 2500 억 위안 늘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컸다.

저우량(周亮) 은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금융 감독 위원회는, 질병 방지 기업의 회복과 생산능력 확대, 재해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신용 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 융자금의 상환 등,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변제 연체를 통한 원리금 상환은 요건 충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저우량(周亮) 은 "1 월 25 일 이후, 20% 정도의 중소기업이 만기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를 이미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우량(周亮) 은 은행업 보험업이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현재 호복을 제외한 전국 은행망 복구율은 95%에 이르고, 보험망 복구율은 97%를 넘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업들의 계좌 활성화가 눈에 띄게 늘고, 기업 자금의 거래, 자금의 회전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표본조사가 있어 경기의 활성화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우량(周亮) 은 "다음엔 금융 규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금융 서비스 실제 경제의 질적 효율성을 높이고, '증분가격 인하제조업의 질적 향상면적 확대' 등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3. 중앙재정부, 국가 용자 담보기금 3 기에서 75 억 위안을 영세 기업 대출용치에 지원 (2020.4.3)

시진핑 총서기가 추진하는 코로나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사업 회의에서의 중요 강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국가용자담보기금 3 기에서 75 억 위안을 출자하고, 다른 주주를 선도하여 90 억 위안을 끌어들이었다. 지금까지 국가용자담보기금은 자본금 496 억 위안을 적립했다. 출자전환자본금은 모두 영세기업 대출 용자 지원에 사용되며, 2020 년에 신규 재담보 사업 규모 4000 억 위안으로 달성하기에 힘써, 전년대비 62% 증가를 예상하며 투자용치 담보 업계의 사업 규모를 확장할 것이다. 동시에, 지분투자를 가속화해 2020 년에 10 개의 소기업 농업을 지원하여 투자 효과가 큰 시 정부 용자담보기관을 유치하고, 조직력을 키워 자금확대를 유도해 지방 정부 용자담보기관의 자금조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정부는 다음 단계로 국가금융담보기금의 투자운용을 가속화하고, 각 정부 용자담보기관의 조업재개 지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실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4. 재무부, 정부 금융 보증 산업이 중소기업의 재개를 완전히 지원할 것을 요구 (2020.4.4)

새로운 관상 동맥 폐렴 전염병 상황과 경제 및 사회 개발의 예방 및 통제 촉진을 조장하기위한 회의에서 진핑 총리의 중요한 연설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중소 기업과 "세 농촌"단체의 자금 조달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이 생산을 재개하고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어려움: 최근 재무부는 소기업과 소기업 및 "세 농촌"기관에 대한 신용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 정부 금융 보증을 충분히 활용해야한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주요 사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수준의 정부 금융 보증 재 보증 기관은 사업 범위를 맹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비 금융 보증 기관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야 하며, 2020 년에 새로운 소규모 및 소기업과 "사농"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 금융 플랫폼의 새로운 금융 보증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 보증 금액과 가구 수는 80 %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5 백만 위안은 50 %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입니다. 2020 년에 국가 금융 보증 기금 (National Financing Guarantee Fund)은 400 억 위안의 새로운 재 보증 사업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규모 농부들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10 개의 현 정부 재정 보증 기관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관 1 백만 위안 이하의 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재 보증 수수료가 면제되고, 협력 기관 1 백만 위안 이상의 보증 사업에 대해서는 재 보증 수수료가 반감됩니다.

세 번째는 요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2020 년에 지방 정부의 금융 보증 기관은 모든 수준의 소기업에 대한 비용을 연중 절반으로 줄이고 포괄적인 금융 보증 수수료를 1 % 미만으로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정책 수렴입니다. 모든 지역은 관련 재정 및 과세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상 보상을 강화하며 수수료 절감 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본 보존을 전제로 농업 지원 및 소액 이익 지원의 효과 평가 및 실사 요구 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어 정부 금융 보증 및 재 보증 기관의 이익 평가 요구 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제약을 강화합니다. 소규모 농민을 지원하고 사업 범위를 허가없이 확대하는 주요 사업에서 심각하게 벗어난 정부 금융 보증 재 보증 기관은 공개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모든 수준에서 재정 및 과세 지원 정책을 향유하지 않아야 하며, 국가 금융 보증 기금의 협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정책은 정부 재정 보증 기관이 중소 기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고,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세 농촌"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소기업이 생산 및 운영을 재개하도록 자극하며 전염병 이후 경제 개발을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보증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의료>

### 1. 국가위건위연합호북서 '질병통제 대훈련' 실시 (2020.3.23)

지역 사회를 전염병 방지의 강한 보루로 만들다. 국가위건위 합동호북성 코로나 19 방지본부는 22 일 후베이성 전염병 방지를 위한 '질병통제 대훈련'을 실시해 현지로 가지 않는 공중위생 단체를 양성했다. 이번 교육은 후베이(湖北) 각지의 질통제센터, 병원, 향진위생원, 지역위생서비스센터 등 공공 위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 주간 실시되었다. "1+2+3+N"형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성급의 고참 전문가들이 호북에서 1 차 교원 양성을 실시하고, 코로나 19 방제 및 기타 관련 질병 예방 통제에 대해 2 개의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단지 집결, 회사업무재개, 특수중점장소 3 곳의 현재단계 방역 핵심기지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능력실조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별 개성화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공중 위생 능력 건설 "맞춤형 교육"을 호북방지통제단체가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열린 교원 양성회에서 국가위건위 부주임인 왕허성(王贺) 후베이(委北)성 상무위원은 "전염병 저지전은 '방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위 건위 전방실무단 조직전문가들은 중앙지도팀 지도 아래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방지 커뮤니티 매뉴얼' 코로나 19 방지 매뉴얼(만화판)을 발간했으며 (도시판농촌판) 등 6종의 교재는 모두 53 만 6000 권으로 교육작업 매뉴얼로 돼 있다. 방제반은 또 감독 조를 배치해 훈련의 질적 통제와 효과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학군 국가위건위 부주임은 "이번 교육은 현재 진행 중인 방역 작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부대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초 구조원과 지역 근무자들의 안전과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국가 의료보험국에서 코로나 19 환자의 의료보험 비용 결산 업무 연구

(2020.4.6)

국가 의보국은 3 일 코로나 19 대응 지도자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환자의 의보료 결제 업무를 연구한다. 현재 코로나 19 환자는 속속 퇴원해 의보료 결제의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 각 의보 부처는 당중앙국무부의 의사 결정을 성실히 관철하고, 의보료 정산을 확실하게 서둘러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2개 확보' 비용 보장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방역 차단 성공을 강력히 지지한다. 후징린 국장, 리두 부국장과 영도소조원 부서는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

## <취업>

###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회서비스분야 쌍창(双创)동력 (2020.3.26)

#### 취업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신장 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상무회의 지도 하에, '쌍창'이 취업시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응하여 사회창업의 활력을 높이고, '인터넷 플랫폼+창업 부문' 등 새로운 시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사서비스, 양로, 농촌관광, 가전품 회수 등 취업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쌍창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집중 홍보하고, 서비스 분야의 대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한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시장 주체가 강한 국내 시장에 다가가도록 유도한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 一、 시범사업의 중점을 명확히 한다

각 성의 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는 '쌍창'이 취업시장의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중점 업무로 한다. 취업 잠재력이 크고, 사회 수요가 절실한 서비스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대기업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현재 발전 중점 영역:

##### (1) 가정 서비스 분야

인터넷 플랫폼 통합 정보 활용자원, 단말의 수요·신용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가정 분야에서의 창업기업이 서비스 표준을 통일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창업을 실현하도록 한다.

가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대기업의 역할, 스마트 가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전문 능력 수출 강화, 더 많은 시장 주체의 창업 참여, 가정 서비스 창업 인큐베이터 건설, 온라인 수주, 오프라인 체험, 학교 교육회사 취업의 가사서비스 산업의 사슬, 가정과 관련 산업서비스의 생태계를 서로 결합하여, 질을 높이고 새로운 업종을 발전시켜 대학생 등 중점적인 창업 취업을 유도한다.

##### (2) 양로 분야

인터넷 플랫폼에 의존하여 효율적으로 노후 가사 지원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기관운영을 위한 관리, 스마트노후서비스 육성, 온라인 교육과 전문융합 강화, 관련 분야 수준 높은 창업취업을 실행한다.

온라인 아동교육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한다. 온라인 관리와 오프라인 서비스의 결합을 추진하여 강점 기업·전문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교육 업계의 규범화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문 자원을 접목하며, 선진 모델을 참조하여 창업 경험을 보급한다. 스마트, 빅 데이터 등 신기술은 양로 분야의 스타트업에 힘을 실어준다.

### (3) 농촌관광 분야

인터넷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촌관광자원에 맞게 온라인 보급을 강화하고, 브랜드 건설과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 분야의 다양화를 이끄는 혁신창업 레저, 문화체험과 농촌관광, 민속문화, 현대농업 등을 통합하여 농촌관광을 적극 발전시킨다.

대기업이 선두에서 농촌의 자원 통합, 귀향·입향 창업과 빈곤탈출 사업, 아름다운 농촌건설을 등 정책을 통합하여 사회자본을 도입하여 농촌창업을 활성화한다.

### (4) 가전 회수 분야

인터넷 경제 발전의 새로운 추세에 가전 회수 분야와 선진 제조현대 서비스업의 융합을 추진하여 업계의 관리운영 규범화 수준을 제고한다.

가전 물류 배송·가전 구축설치, 가전회수, 중고상품 거래의 창업생태, 기사, 정비 등 종사자들의 유연한 창업기회 창출,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분리수집, 운수, 분주, 회수, 재활용 산업을 아우르는 전 산업에서 실행한다.

## 二、자원 결합 강화

각지의 발전 개혁 위원회를 지방 관계 기관과 국가·쌍창 시범 기지 건설, 가정 서비스 산업의 질적 확대 촉진, 행동의 일괄 추진, 협력 형성, 육성된 사회 분야의 "쌍창"에 의한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한 지원을 실행한다. 관련산업 직장과 대학 졸업자, 농민공, 퇴역군인, 퇴직노동자 등 취업 중점 인력을 전환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쌍창을 활용하여 고용창출과 관련 분야의 사업결합, 자금지원 일괄지원, 채권발행 협조, 신용대출 시범범위 포함 등을 통해 지방이 육성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쌍창 지원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 프로젝트를 인터넷 플랫폼 기업·기업 쌍창 시범 기지·창업 투자 협회 등과 연계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 기지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질 높은·전문화를 확대하고 서비스 인재를 공급한다.

## 三、성공 경험을 보급

각지의 개혁 위원회를 발전시켜 쌍창 시범단지는 2020 년 전국 쌍창활동 주간, '중국을 일깨우기', '취업창업서비스의 달' 등 행사를 각종 혁신창업대회 등과 결합하여 기획하고 현지에 보급하는 '쌍창'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양로, 아동교육, 농촌관광현장회, 강습회와 쌍창시범기지 등 모델을 결합해 취업현장 경험 교류회를 이끌어가는 등, 쌍창동력으로 고용신모델을 선도하고, 새로운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 四、집중 홍보

각지의 개혁 위원회를 발전시키고, 쌍창 시범단지, 현지 관련 매체와 협업하여 인터넷 동영상, 생방송, 위챗 공중계정 등 뉴미디어 수단을 통합 운영하고 결합해 현지 쌍창이 고용 효과를 이끄는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중앙언론사들이 각 지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형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와 우수 전국 쌍창주간 정밀전시 지원, 쌍창주간 창업동반자 공모 지원 등의 활동을 잇달아 벌이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위원회의 주도 하에 전시사회서비스 분야인 '쌍창(双)'이 취업 시범사업을 이끈 효과가 큰 곳은 쌍창 시범단지 신설, 창업과 고용 창출 등 플랫폼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